JAN 2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29 1982년1월2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anuary 23,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81년 인플레율 12.5%

33년만에 최고, 유류가 주범

82년 12.7% 예상, 미국 81년 9.6%

(오타와)캐나다의 81년도 인플레이션율은 33년전인 1948년이래 최고인 12.5%를 기록 했다고 캐나다 통계국이 19일 밝혔다.

지난8일 통계국이 12월중 캐나다 전국의 실업률 8.6%(계절요인감안)가 1945년 이후 최고기록이라고 밝힌데 이어 발표된 이 숫자는 높은 금리와 아울러 캐나다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으며, 연방정부가 써온 고금리 정책과 반물가정책및 에너지정책등의 경제강경책이 별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율 최고기록의해는 1차대전중이던 1917년의 18.2%이고, 2차대전후 한국동란 발발전인 1948년의 14.2%가 그다음 기록이다.

81년12월중 물가인상률은 12.1%로 11월의 12.2%보다는 약간 떨어진 편으로 그 이유는 큰 수퍼·마켓이 치열한 가격전쟁을 벌여 식품비가 떨어진 데 기인한다.

한 통계국 직원은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높고 개솔린등 유류값이 작년 9월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와 맺은 에너지협정에 따라 계속 올라 식품비를 제외한 12월의 물가가 11월보다 오르게 된 주 원인이 되었다.

81년중 가장 인플레이션율이 높았던 달은 7월로13%였다.

식품비는 상반기중 치솟았다가 가격전쟁으로 하반기 들어 점차 떨어졌고, 주택비는 연간 13.9% 뛰었다. 주택비 앙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층은 주택소유자들로, 모기지이자율및 재산세 앙등으로 17%를 더 부담한 반면, 렌트는 연간 7.5%가 올랐다.

에너지가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교통비는 20.2%, 개솔린비는 연간 무려 39.7%나 뛰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예견한 81년 물가앙등률은 연12.7%였다.

미국의 80년11월부터 81년도 11월까지 1년간 물가인상률은 겨우 9.6% 였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그전해에 에너지값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감수한 반면, 캐나다는 81년들어 비로소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탓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에서 1971년도에 $100에 살 수 있던 물건을 10년후인 81년에는 $248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71년도에 $100짜리 물건을 81년에 $235이면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세계 7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의 물가인상률은 중간 정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11월중 일본의 물가인상률은3.6%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서독의 6.6%, 미국의 9.6% 영국은 12.0%로 캐나다와 동일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4.3%로 제일 높았다.

연방정부의 맥케큰 재무상은 지금까지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타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실패, 25일 의회가 소집되면 야당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1년 수출고 $211억

목표액 초과 2.8%

(서울 20일=연합) 81년도 한국의 총 수출고는211억달러로 전년도보다 20.4%, 목표액보다는 2.8%증가했다.

이같은 수출의 증가는 정부가 중동, 남미및 아프리카의 여러국가를 집중적으로 해외시장 확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20일 정부 최종집계가 밝혔다.

생산품별로 본 수출비율은 중화학공업 생산품이전체 수출의 45.3%, 경공업품이 47.6%, 농산, 광산물등 1차산업 제품은 7%였다.

소련미사일도 구입

이태리「붉은여단」서

(로마-UPI) 이탈리아의 페르디난도 임포시마토검찰총장은 제임스도지어 미육군준장을 납치한 테러단인 「붉은여단」이 한 팔레스타인 단체를 통해 몇년전부터 소련의 미사일과 최신예무기를 구입해 왔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실은 지난 78년 알도 모로 전 수상 암살사건과 관련 체포된 48명의 붉은여단 단원의 재판과정 서류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팔레스타인 단체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는 다른것으로 붉은여단에게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또한 소련비밀경찰(KGB)의 협자노릇을 하고 있는 붉은여단에 버금가는 좌익테러단이라고 말했다.

유총리외교유시

해외 외교관들을 소집

(서울 20일=연합) 유창순 국무총리는 20일 해외주재 한국외교관들을 초치하여 250억달러로 설정된 82년 국가수출 목표 달성의 지원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5차 사회-경제5개년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주재하는 국가와의 무역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유럽, 북미, 남미및 아시아에 주재하는 고위 한국외교관들의 4일간의 회의 첫날에 행한 연설에서 유총리는 또한 분단된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평양측과의 대화재개에 서울이 주도권을 잡도록 주재국들의 지원을 집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총리는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하계올림픽을 공산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외교관들은 또 증가일로에 있는 해외거주 한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병현 주미대사와 최경록 주일대사를 포함, 36명의 고위외교관들이 이번외교관 회의에 참석했다.

실직자살 급증

범죄도 증가, 실업률20%

(브랜트포드)온타리오주 브랜트포드에서 최근 발생한 6건의 자살사고는 실직으로 인한 좌절이 이유로 꼽힌다고 에드·브로드벤트 신민당수가 밝혔다.

브로드벤트 당수는 18일 브랜트포드의 시직원, 노조대표및 농부 대표들과 가진 회합에서 최근 2년간이 지역의 결혼파탄, 어린이학대및 구타, 기타 범죄와 자살건수가 심각히 늘어났으며, 그 원인은 근 20%에 달하는 실직률에 있다고 말했다.

6건의 자살동기가 정말 실직으로 인한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회합에서 한 노조대표는 두 자녀의 아버지인 자기 친구가 실직이후 부인과 별거하고,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을 비관,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꾀했다고 말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연방예산 시민의 범법유발

보수당조사, 기업주보다 평민에게 고통

(오타와)보수당 경제 전문가 마이클·윌슨 의원은 작년 11월12일 자유당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관한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평소에 범법을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서민들까지도인컴텍스를 속이는 방법에관해 논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이토비콕·센터 지역 출신의 윌슨 의원은 지난 3주간 보수당의 예산안에 관한 불평조사 전담반을 이끌고 농부, 중소기업인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반응을 청취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4.5 명중의 1명꼴이 세무당국을 속이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이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과 에너지값에 시달리는 일반 서민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8년간 200만명 헌혈

대한적십자사 집계

(서울 20일=연합) 대한적십자사가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협회의세계적인 헌혈운동에 발맞춰 74년부터 실시한 헌혈운동으로 지금껏 200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헌혈을 했다고 20일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적십자사의 헌혈운동은 처음 일반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연간 헌혈자는 4~5만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77년이래 헌혈자수는 매년 10만여명으로 증가, 81년말에는 1백99만4천명이 헌혈을 했다.

적십자사에 의하면 헌혈운동의 성공으로 최근 전국 각병원과 진료소에서이용되는 피의 93% 정도가 헌혈로 모아진 것이다.

—일부지역 신문배달 지연에 대해—

희망찬 새해에 독자 여러분위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성탄과 연말 연시를 기해 일부지역에 신문배달이 순조롭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로서는 매일 신문을 인쇄하는 즉시 발송하오나 우체국의 업무량 급증 사정으로 부득이 배달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을 제때에 못받으시는 독자들께서는 이같은 사정을 이해하셔서 우선 우편배달부, 또는 거주지 우체국 수퍼바이저에게 항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배달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참아주시고,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한국일보사 독자부 드림

※온타리오지역 배달지연 항의전화는 369-2338
※기타지역은 지역별 중앙우체국의 Customer Service (카스토마·서비스)로 전화하면 됩니다.

수퍼볼熱氣가 솟는다

宿命의 對決……

◇전열을 가다듬는 샌프란시스코의 49er's. 24일 디트로이트 근교 폰티악 실내경기장에서 신시내티·벵골스와 제16회 슈퍼볼(NFL 챔피온전)을 놓고 숙명의 대결을 벌인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전문시장조사요원모집

당관은 한.카 무역량이 급증함에따라 각종 업무가 폭주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카나다의 계속적인 시장확대와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능한 시장조사요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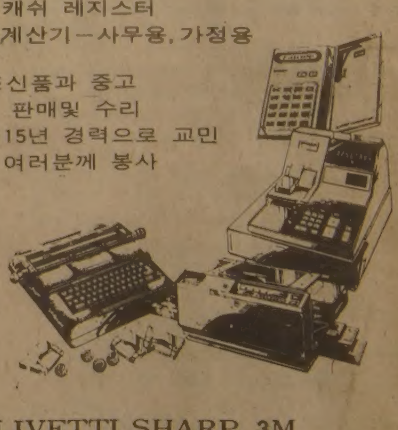
1. 학 력 : 대졸이상(경제학 또는 마켙팅 전공자
2. 경 력 : 무역회사 또는 조사기관 2년이상 근무자
3. 자 격 : * 캐나다시민 또는 영주권소지자
*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자
4. 대 우 : 경력에따라 우대함.
5. 신청마감 : 82년 1 월29일까지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1매를 당관에 제출.
※ 문의사항 : 당관 임과장에게 문의바람

토론토 무역관
20 QUEEN ST. W. # 2802 TOR, ONT. M5H 3R3 전화 : (416)977-878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O 수리중 차 대여
O 완전한 차체수리
O 사고차량 Towing Service
O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2ND CLASS MAIL NO. 5248 [illegible]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토론토대학 대리시험 말썽

필수영어시험에서 학생증 제출요구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퍼진 시험부정 문제는 급기야 토론토대학교의 영어 숙련시험 (English Proficiency Test)에서 발각, 철저한 단속령이 내려졌다."

앞으로 학생들은 학생증에 본인사진을 붙이게 돼 있어 대리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토론토대학교 문리대(Arts and Science) 아트·크루거 학장은 "굉장히 충격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필적감정 결과 2명의 학생이 대리인을 시켜 시험을 치게한 것이 발각됐다고밝혔다.

학교에서 이같은 시험부정이 횡행하고 있다는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지난 가을, 그때 시험감독을 하던 교수 하나가 시험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라고 지시하자, 몇몇 학생이 일어나 교실을 나갔다. 크루거는 이것은 그들이 대리시험을 부탁한 학생들의 생년월일을 미처 일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후 시험감독을 하는교수들은 한층 주의 깊게 감독, 마침내 필적검사로 두 학생을 적발했다.

이 시험은 통과될 때까지 몇번이고 칠 수 있기때문에 학생들의 필적을 비교해볼 수 있다.

크루거는 또 대리시험을 치게 하다 걸린 학생들이 이같은 시험부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하는데 또 한번 놀랐다고하며, 이같은 부정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학생들이 시험볼때에 본인사진이든 ID카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덧붙였다.

토론토대학교 문리학부에 적을둔 학생은 모두 3학년 전까지 2년동안 영어 숙련시험에 통과돼야한다.

연합상사, 도매상 증설계획

비데오회사 차려

지난 18일 토론토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대표 김현모)는 비데오회사 유나이티드·비데오 LTD.를 설립했다.

19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현모 대표는 "올해 첫사업으로 비데오회사를 설립했으며, 두번째 사업으로 곧 여행사를 차릴 예정이다. 또한 스카보로 지역에 도매상(Cash & Carry)를 설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는 HIT 도매상을 인수했었다.

현재 도매상은 백이삼씨가, 비데오회사는 김현모씨가 운영중이다.

정부에 올림픽후원기구

11개소 위원회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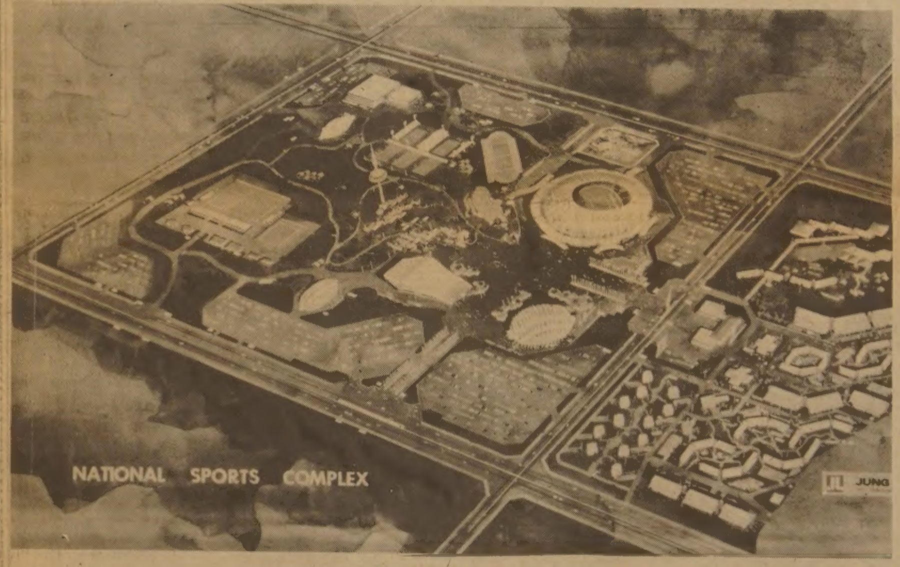
(서울 20일=연합) 한국정부는 88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정부부처간 후원기구 결성및 활동사항지침을 마무리짓는 내용의 초안을작성했다.

20일 고위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이미움직이고 있는 서울올림픽구성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 소위원회는 기획, 재정, 스포츠, 시설및 환경, 통신, 교통및 관광, 문화및 홍보, 공보및 원정, 보건위생, 개발, 안전위원회이다.

지침서에따르면 정부각 부처는 서울올림픽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에 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 이것을 제안된 후원기구에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각부처는 올림픽에 관련된 계획을 전담으로 세우고, 수행하는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

◇15,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실내경기장의 전면



◇88년 올림픽이 열릴 잠실국립경기장의 조감도

자녀를 잘 아는 길

보다좋은 부모가 되는 설문30

부모 여러분, 여기좀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집에서 삽니다. 당신은 그들이 입는 옷의 크기와 그들의 식성에 대해 잘 안다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로그들을 압니까?

전 카운셀러이며 현재자유기고가로 일하는 오하이오주 캔톤의 쥬디·베일리씨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돕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만들었다. 30개의 설문으로 된 이 퀴즈는 그녀가 8년간의 카운셀러 경험을 통해 만든 것이다.

그녀는 부모와 자녀들의 상담을 통해 그들이 서로간에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가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녀들과— 혹은 누구하고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양」이 아니라「질」이라고 한다. 즉 자녀에 무관심하면서 하루종일 같이지내는 것보다 단 몇분이라도 애정과 이해하려는 태도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각 가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거르지 않고 매일 방과후나 저녁식사후, 아니면 잠자기 전 5~10분간가지는 것이 이상적 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스케쥴에 맞춰 대화시간을 갖고 강제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나누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의한다.

가족간의 대화시간에 언제나 무겁고 심각한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 어떠한 기본적이고 좋은 관계는 수용"(acceptance)에서" 이루어진다. 가벼운 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원치 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입을 뗄 수 있는 자유를허용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먼저 이 퀴즈를 푸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다.

베일리에 의하면 퀴즈점수가 25~30점이면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필요한지 아주 잘 이해하는, 즉 자녀와의 대화가 활발한부모이고, 14~25점이면 상당히 아는 편이나 개선이 필요하고, 0~14점이면 부모, 자녀간에 거의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경우이다.

당신의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쏟고 관찰하며, 대화를 가져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도 당신에게 관심을쏟을 것이다.

◇설 문

1. 당신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가?
2. 당신 자녀는 그(녀)의방이 어떤 빛깔로 꾸며지는 것을 원하는가?
3. 누가 당신 자녀에게 가장 영웅시되고 있는가?
4. 무엇이 당신 자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가?
5. 당신 자녀는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가?
6. 체육관에서 당신 자녀는 농구, 체조, 달리기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
7당신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은 무엇 인가?
8. 가족외에 어떤 사람이당신 자녀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가?
9당신 자녀는 학과목중에서 어느 과목을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10. 무엇을 성취했을 때 당신 자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11. 당신 자녀의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12. 당신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T.V쇼(프로)는 무엇인가?
13. 당신 자녀가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14. 만약 당신 자녀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사줄 수 있다면 당신 자녀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를것인가?
15. 당신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은 누구인가?
16. 무엇이 당신 자녀를 정말로 화나게 만드나?
17. 당신 자녀는 학교 동료들한테 호감을 사는가?
18. 당신 자녀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
19. 올해(작년) 당신 자녀의 생활해서 가장 실망적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20. 당신 자녀는 나이에 비해 적다고, 혹은 크다고느끼나?
21. 당신에게서 받은 선물중 어떤 것을 자녀는 소중히 간직하나?
22. 당신 자녀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을 원하나: 캠핑여행, 대도시 방문, 혹은 보트여행?
23. 다음 잡일중 당신 자녀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은: 접시 말리기, 자기방 청소, 혹은 쓰레기 버리기?
24. 교과서 이외에 당신 자녀가 최근 읽은 책은?
25. 무엇이 당신 자녀가 좋아하는 가족행사인가?
26. 어떤 음식을 당신 자녀는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27. 당신 자녀는 학교에서 어떤 별명으로 불리우는가?
28. 당신 자녀는 언제 숙제하기를 좋아하는가? :방과후 바로, 저녁식사후, 취침전, 혹은 아침 등교전?
29. 당신 자녀는 애완동물중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고양이, 개, 새, 혹은 물고기?
30. 무엇이 당신 자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인가?

<여행상식> ④

예약은 가능한한 빨리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다) 예약

예약은 한마디로 항상일찍 해야 한다. 긴급한 일로 갑자기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도록 사전계획에·의거, 떠나는 날과 돌아오는 날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자가 이미 만원일 경우가 많다. 특히 돌아오는날이 8월말일 때는 항상 만원이다. 봄부터 떠나기 시작한 사람과 학교방학을이용하거나 직장의 하계휴가를 이용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8월말이나 9월초까지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떠날 때는 조금씩매주마다 떠난 것이 돌아올때는 무더기로 몰려서 돌아오게 되므로 8월중순부터는 자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돌아오는 날자를 정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중에 이때를 택해 돌아오고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매년 8월말이 되면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휴가가 끝나서 9월초부터 근무해야 하는데 자리가 안 잡히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등의 부탁이다. 대개 미리 복편 예약을 안했거나 예약날자를 변경하는 사람들이다.

예약이 되 있어도 출발 72시간전에는 재확인해야한다.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성명과 예약한 항공편과 날자를 이야기 하고, 계획대로 떠날 예정이니혹시 무슨 변경이 생기거든 연락해 달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일단 예약한 후 변경이 필요할 때 빨리 변경한다. 아직 떠나는 날이 멀었으니 하고 무심코 나날을 보내다가는 여행에 큰 차질이 생긴다. 예약이 일단되면 가능한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항공요금

모국방문 항공요금은 1976년경 800여달러 하던것이 82년1월현재 1,400 달러정도 된다. 항공유의 인상과 운영경비의 증가로말미암아 매년 인상됐으나, 아직도 정규 개인 요금에 비하면 이 요금은60%정도이다. 캐나다를 출발할 때 적용되는 것이 40명 단체요금이다. 여객은 개별적으로 떠난다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단체를 조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CPAir (토론토↔서울 왕복기준)

	성인	어린이	유아
현재	$1,380	$919	$120
82.2.1 부터	$1,490	$992	$120

※어린이 : 만 2~12세
유 아 : 만 2세미만

KAL (토론토↔서울 왕복 기준)

뉴욕 경유	$1,320	$690	$176
L.A. 경유	$1,380	$690	$176

KAL의 경우 경유지에 따라 요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른 항공사에 지불하는 청산금액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어린이요금은 훨씬 싸다. 따라서 어린이 2명이상이 떠나는 가족여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약이 된다.

이 요금들은 여름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변경될 것이 예상된다.

(마) 수하물(짐)

(1)무료탁송수하물의 허용량

항공기는 상하로 반분하여 윗쪽에는 사람이 타고, 아랫층에는 짐을 싣는다. 여객이 가지고 가는 모든 짐은 여객과 함께 여행하게 된다. 수하물은 보통두가지로 구분한다. 즉 아래층에 탑재시키는 짐과 본인이 직접 객실로 들고 들어가는 짐이다.

Free Baggage Allowance(무료탁송수하물)은 1인당 32kg 또는 70파운드 짜리 짐 2개씩을 허용, 64kg 또는 140파운드로 사람1명의 무게와 비슷하다. 이 허용량은 원칙적으로 손에들고 들어가는 짐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객실로 들고 들어가는 짐은 보통 여자의 경우 Hand Bag, 양산, 기타 유아가 동반될 때는 유아용 우유와 위생용물품 등이다. 남자는 손가방, 카메라 또는 어깨에 매고 다니는 오버 나잇 백 등인데 부피로서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23×41×51=115cm(45인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의자밑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한다.

탁송하는 수하물의 부피는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65인치짜리 1개와 55인치짜리 1개로 제한돼 있다. 이것은 보통 여행용가방의 크기이다. 이 이외에 스키용 도구나 골프셋트등은 본인의 짐의 양에 따라 무료로 반아주는 경우가많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

토론토 한국일보

교역자청빙공고

토론토 한인선교교회(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교회임)에서는 사명감이 두터우시고 헌신 적으로 목회하실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목사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자 격 : ①목사안수를 받고 3년이상 목회경험이 있으신분.(북미에서 신학을공부하시고 목회경험이 있으신 분을 더욱 환영함)
②영어를 구사할수 있으며, 앞으로 캐나다 장로교 교단에서 인정 받으실수 있는분.
대 우 : 캐나다 장로교회의 기준에 준함.
제출서류 : ①이력서 한글, 영어 각1통.
②목회소견서 1통
명암판사진 2매
연 락 처 : KOREAN MISSION IN ST. MARK'S PRESBYTERIAN CHURCH
1GREEN LAND RD, DON MILLS
ONT. M3C 1N1
(416)624-8476(조장로)
(416)298-4099(허장로)

토론토한인선교교회

직원모집

한국에있는 CITI BANK한국 지점에서 근무하실분 구함.

★토론토대학 학생일 경우=
* 자 격 : 토론토대학 4학년(졸업반) 재학생으로 비지네스나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
* 응모요령 : 토론토대학 안에있는 Placement Centre(344 Bloor St. W. 4층)에 직접 가보실것
※U.C.P.A 용지나 이력서를 제출해야함
* 기 간 : 1982년1월25일부터
* 인 터 뷰 : 1982년2월1일

★토론토대학 학생이 아닐경우=
다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아래주소로 신청하기 바람.
Maureen Carty Citibank, N.A. IB/ Recruiting, 399 Park Avenue 5th Floor Zone 14 New York, New York 10043
* 모집인원 : ○○명
* 문 의 처 : 298-0432(천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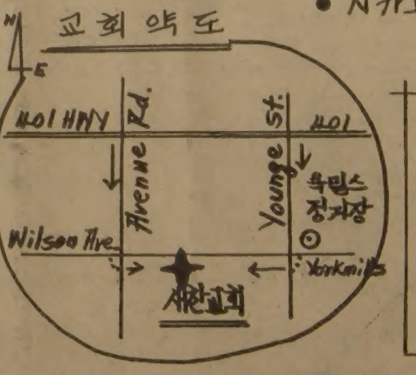
김형석 교수

특별성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연세대학교 문리대 철학교수
- "영원과 사랑의 대화"외 저서다수
- 라디오, TV, 집회등을 통해 청년신앙지도
- 시카고대, 하바드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연구교수

교회 약도



성회 일정

2월 5일 (금)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6일 (토)	아침 7시:	새벽의 명상
	오후 2시:	청년신앙강좌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7일 (주일)	오후 2시:	주일예배
	밤 7시30분:	특별성회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世界의 新聞……뉴욕타임스

「세상이 傾聽하고 크레므린이 注視」하는 NYT이모저모

有名한 社是…「인쇄할만한 뉴스는 모두싣는다」
妥協모르고 不偏不黨·의연한 자세로 聲價 쌓아
뉴욕市民의 자랑…「뉴욕타임스를 읽을수 있다」

편집국 記者만 3백75명、世界곳곳에 특파원
40個의 子會社거느려、자체製紙공장만 16個
1851년創刊、평일88만·일요판 1백46만 發行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인쇄할만한 뉴스는 모두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알린다는 사시아래 창간호를 낸것은 131년전인 1851년 9월18일, 뉴욕시 맨하탄 Nassau St 113번지의 조그만 사옥에서였다.

그로부터 3년뒤인 1854년 같은 나소 스트리트1백38번지로 옮겼다가 1905년 타임스스퀘어로 그리고 1913년 현재의 West 43가 사옥으로 옮기는 동안 발행부수는 1981년 11월말 현재 평일판이 88만7천부, 일요판이 1백46만2천부를 헤아리고 있다.

편집국 기자 숫자는 3백75명으로 이중 70명은 일요판에만 매달려 있다. 부서별 평균인원은 50여명.

미국내 지국에…산재한 지방기자는 55명으로 이중 35명이 뉴스의 진원이라할 수 있는 워싱턴지국에 몰려있다.

세계의 22개 주요도시및 U.N에 상주하고 있는 특파원(Correspondent)은 총32명으로 동경지국에서 서울과 일본을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헨리·스콧트, 스톡스도 이중의 하나다.

이들 32명의 특파원들은 나름대로의 개인 정보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 정보원과는 별도로 기사에 따라 돈을 받는 5백여명의 통신원(Stringer Correspondent)들이 웬만한 도시에는 한명씩 다 있다.

이들 통신원중에는 비중있는 기사를 많이 취급하는 지역인 경우 사무실운영경비를 제공받으면서 외관상으로는 지국과 동일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해외지국이 있는 도시는 아테네, 방콕, 베이루트, 벨그라드(유고), 본, 브에노스아이레스, 카이로, 홍콩, 예루살렘, 요한네스버그, 런던,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몬트리얼, 모스크바, 나이로비, 뉴델리, 파리, 리오데자네이로, 로마, 동경, 토론토및 유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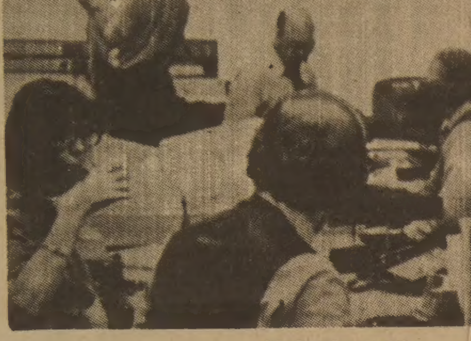
현재 한국관계기사는 10명의 기자가 전담하고 있는 (Asia Desk)에서 처리된다.

아시아에서 오는 특파원들의 기사와이들 10명이 뉴욕에서 작성하는 기사는 최종적으로 로버트샘플(Robert Semple) 외국뉴스편집장(Foreign News Editor)에 의해 취사선택및 크기가 결정된다.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때는 아시아 데스크의 기자가 임시로 보충되었었는데도 눈코뜰새없이 바빴다고 샘플씨는 회고한다.

또한 NYT는 이른바 "Banner"라고 하는 전단제목은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NYT는 신문이 취급하는 기사, 사진의 크기 단수로 독자들에게 미리 뉴스의 크고 작음을 가늠해 줘서는 안된다는"신문기사평가의 중립"을 내세워 다른 어느신문보다도 센세이셔날리즘에 휘말리지 안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문으로 이미지를 굳혀갔다.



▲뉴욕타임스 편집국.

매일밤 第1版은 통신사·각국 記者들의 取材源
美歷代대통령들 눈뜨자말자 NYT 손에 들어

한국관계기사로서 1면에 크게 나간것은 1961년 5·16혁명때가 3단 오른쪽 톱, 박정희대통령이 피살된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자가 4단 오른쪽 톱, 그리고 작년도 광주사태및 이전의 서울학생데모가 3단으로 한주일 동안 세번이나 중상단의 톱기사로 나간적이 있다.

최근의 NYT Banner 로서는 레건대통령취임식과 이란에서 미인질이 석방되던 1981년 1월21일자 및 폴랜드 자유노조 지도자들이 전원체포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던 81년12월14일자가 가장 최근 것으로 기록된

근 4백여명의 NYT기자중 외국특파원으로 발탁되기란 한국언론계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여간 심한것이 아니다.

NYT의 한 홍보관계자는 최소한 입사 3-4년이 지나야 외국특파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선정기준엔 현지사정이 밝은 지연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정식기자가 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는 미국언론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서울의 주요일간지가 수습기자를 뽑는것처럼 일년에 한번씩 대학졸업시즌 3-4개월을 앞두고' 「XX년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남녀」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응모를 받는다.

NYT의 인사부에는 전국각대학 대학원의 저널리즘 전공자, 법과대학졸업자, 정치학, 경제학전공자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신참 졸업생들로부터 군소지방지 현역기자들은 물론, 미국내 제법 큰 신문들의 중견기자들이 보낸것도 포함된 입사신청서가 늘 수북히 쌓여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원을 보충해 나가고 있지만 한번 들어오면 회사를 떠나는사람이 많지 않아 기자모집이 활발한편은 아니라고 회사측에선 귀띔한다.

이러한 좁은 관문을 뚫고 들어와 NYT의 편집국 기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때 이미 교지에 관여하다가 졸업후 지방신문에서 어느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평균88페이지에 달하는 뉴욕타임스의 평일판에 나오는 단어수는 자그만치 7천만자가 넘으며, 이들중 일부는 AP,UPI, AFP, 로이타등 9개의 통신사가 보내오는 평균 2백만자에 달하는 각종 뉴스에서 발췌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NYT가 이러한 통신에서 기사를 받는대신, 매일밤 10시에 NYT의 지방판 제1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들 통신사들은 물론 소련관영 타스통신까지 NYT의 주요기사를 텔렉스나 통신위성으로 각국에 송고하는 경쟁이 벌어진다.

닉슨을 제외한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아침에 눈을뜨기가 무섭게 NYT의 일면뉴스를 일독하고 커피를 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발행부수로만 본다면 일본의 요미우리 북경의 인민일보나 소련의 프라우다보다 적지민 평일판 88페이지, 일요판(매가진포함) 6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은 세계의 어떤 신문도 따를 수가 없다.

1977년 11월13일 일요일자 신문은 무려 1천36페이지로 무게만도 3.6키로그람이 넘는 뉴욕타임스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1980년의 뉴욕타임스 수입은 4억6천3백만달러로 1978년의 2억9천4백만달러와 비교할때 엄청난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순이익만도 1980년도엔 3천1백만달러를 기록했는데 1978년도엔 경영압박으로 1천2백만달러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현재 4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뉴욕타임스컴퍼니로 성장했다. 일간지 11개, 주간지 7개, 지방 TV방송국 3개, 라디오방송국 1개 (WQXR AM FM, 뉴욕) 그리고 5개의 잡지를 갖고 있다.

발행부수 1백만을 넘는 「웨밀리 서클」「골프 다이제스트」「테니스」는 모두 각분야에서 최고의 판매부수를 자랑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의 잡지는 호주에서 발행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출판사와 정보은행(DATA BANK)도 있고 신문사가 제일 필요한 제지공장만도 16개를 갖고있다.

자매회사중엔 NYT세일즈 CO.라고 해서 NYT NEWS SERVICE라는 이름으로 미국내 5백6개 신문사와 53개국의 외국신문사에 사진과 뉴스를 팔고 있다.

각나라에 한 신문사씩과 이른바 「특약」을 맺어 뉴스와 사진을 보내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것은 그러나 아무래도 이러한 상업적사세가 아니라 인쇄할만한 모든 뉴스는 모두 싣는다는 사시에 따른 불편부당의 의연한 자세에 있다고 동사의 홍보관계자는 강조한다.

NYT은 대문짝만한 전면광고를 빈번히 내는 광고주에게도 서슴없이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펜타콘 페이퍼」暴露때는 社運걸고 政府와對決
어떤 批判도 NYT 상처 입히기에는 力不足

타협을 모르는 NYT의 자세가 가장 돋보인 1971년의 「펜타곤 페이퍼」사건은 지금도 종종 언론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0년전 6월13일자 NYT는 1면 톱으로 닉슨행정부의 대베트남정책 기밀문서를 폭로 정부와 일전을 벌였다.

NYT는 당시 행정부와의 정면대결을 감수하고 사운을 걸고 펜타곤 기밀문서를 보도했다. 무려 25만달러를 들여 비밀보존을 위한 별도의 기사작성및 인쇄장소를 마련, 사상최대의 특종을 보도했던 것이다.

『NYT가 한마디하면 유럽이 경청하고 크레믈린이 주시한다』고 전 NYT편집국장 해리슨·솔즈베리는 그의 NYT에 관한 저서 『두려움도 회의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에서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펜타곤 페이퍼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언론이 명실공히 제4부로서 입법, 사법, 행정위에 군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뉴욕타임스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월드뉴스의 공격이나 다른 단체들의 비난이 NYT에게 적으나마 어떤 상처를 입히기엔 아직도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왼쪽으로부터 아더·솔즈버거회장, 시드니·그루손부회장, 월터·매트슨사장.

▲뉴욕커들이 뉴욕에사는 재미중 으뜸으로 삼는것은 「뉴욕타임스를 읽을수있다」는 것이라고한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0)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번역

비록 타릭과 헤켄죽 두개가 다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카일라신을 근본적으로 힘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이 두개의 개념은 헤켄죽을 카일라신이 땅에 묻어 두었다. 아모우 늑대가 놓아주었다는 우화를 낳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우화는 아담과 이브의 우화와 일치점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점이 우리가 원주민들의 종교를 피상적으로 판단해볼 때 기억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양심과 귀신과 악마의영혼세계를 이해하는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세 구룹으로 이들을 나누어 볼려고 한다. 이들중 첫번째 구룹은 악에 헌신하는 초자연적인 실체들이다. 이들은 가끔 무시무시한 유령들로 나타나 극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중에서 파괴행위를 일삼는것을 말한다.

이귀신들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파이쟈라고 불리는 귀신인데 무지막스럽게 큰 여자귀신이다. 이 여자귀신은 한개의 다리가 생식기에서 자라나 있는 거물로 전혀 옷을 걸치지 않고 긴 검은 머리로 몸을뒤덮고 있다. 파이쟈는 캄캄한 겨울밤에 몰래 기어다니며 눈위에 발자국 한쪽석을 남긴다. 그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인간의 비뚜러진 발을 연상케 한다.

파이쟈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파이쟈를 보는 순간 인간은 영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마음속으로부터 얼어붙어 죽어버리고 만다. 나는 일찌기 허드슨베이 해안선에서 살고 있던 쟈투라는 사람이 파이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다. 어느 겨울밤에 그는눈보라가쏟아지는눈속에서덫에 무엇이 걸렸는지 둘러보고 오는 중이었다. 희뿌연 눈보라는 캄캄한 밤에 짙은 안개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의 그림자 속처럼 어두웠다. 쟈투가 이글루에 도착, 안으로 들어올려고 잠시 멈추는 순간 집안에서 기다리던 식구들은 심한 바람과 함께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지른 단한마디의 마지막 단어는 "파이쟈"였던 것이다.

몇시간이 지나서야 집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다 보았다. 그때 샤만인 쟈투의 동생이 부적이 달린 혁대를 매고 창을 들고 어두운 박으로 나갔다. 그는 쟈투가 썰매옆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눈은 계속 쏟아져 쟈투의 무릎까지 올라왔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선채로 죽어있었다. 뻗뻗하게 얼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눈속을 뚫어질 정도로 쳐다 보느라고 눈을 확 부릅뜬 채로였는데 그의 눈동자속에 파이쟈의 영상이남아 있었다. 그래서 쟈투의 동생은 파이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사람이 되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눈속에서파이쟈를 보고 죽어버린 사람의 눈에 비쳐진 무서운 공포를 보았을 따름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쟈투와 그의 동생 둘 다 내가 이야기를 들은 강주변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파이쟈는 가장 무서운귀신이지만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어떤것은 크고 털이없는 배를 땅바닥에 질질 끌며 다니는 귀신도 있다.

이 귀신의 손가락끝에는 살속에서 자라 나온 날카로운 칼날로 무장이 되어 그는 높은 산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다가오면 몇시간씩 살아있는 동안 잔인한 꾀를 다해서 몸에 붙어있는 살을 모두 찢어 발긴다고 한다.

또 다른 것으로는 웨니고라고 불리는데 숲속에서 사람을 잡아 먹는 악질적인 귀신이다. 웨니고는 북쪽에 사는 인디안에게도알려져 있고 그 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며 거기서는 웬디고라고 부른다. 이들 두 귀신은 실제 하나이며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인디안과 이할미우트의 문화를 비교하면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반면 이들은 서로 천적처럼 지낸다.

이들 세개의 기분나쁜귀신들은 이 구룹에 속하는 다른 여러 귀신들처럼 좋은 목적으로도 섬겨진다. 웨니고는 이할미우트가 이덴 엘델리 인디안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수림 지대로 못가게 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파이쟈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캄캄한 밤중에 쓸데없이 나돌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무모하게 돌아 다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때가 종종 일어난다. 산속에 사는 배를끄는 거인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위험한 바위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한번은 윈디베이 근처에 있는 고스헐로 오텍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 귀신에 대한 위력을 체험했다. 오텍은 가기 싫어했지만두려움을 꾹 참고 따라왔다. 빙하와 같은 바위위를 건는다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우리는 바위와 바위사이를 건너 뛰어야 했다. 밑에 고무를 댄 장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번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오텍은 사슴가죽으로 만든 카믹(장화)를 신고 갔는데 장화밑바닥이 편편해서 얼음이 얼어붙은 바위위를 걷기가 여간 고생스럽지 않았다.

(계속)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약국개업

WILLER'S PHARMACY

한국인 여자약사 탄생 : 양문정

● 토론토대학 약학과 4년졸업
● Shopper's Drug Mart
● Yurek Pharmacy
● Vanguard Pharmacy 근무
● Pharmacist Manager 경험
● 건강상담환영(한국어나 영어)
● 각종 약보험 취급
※약국뒤에 두 Doctor's office가 있읍니다.

한국인 여자약사
양문정(CLARA YANG)
1148 DAVENPORT RD.
(at Ossington Ave.)
전화 : 656-3351
656-3247

토론토한인배구협회 (가칭)

창립총회공고

그동안 여러 배구애호가의 요망이 있어 지난1월14일 발기인회를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갖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공고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1월30일(토)7시30분
장 소 : 1101 Pharmacy ave. Scarb. 리크레이션룸 (at Lawrence)
기 타 : 당일 간단한 다과를 준비함.
문의처 : 923-4846(문)
755-9925(임)
755-6434(박)

발기인 :
문영환 박재선외18명

BAKERY DELITE

A CANADIAN FRANCHISE
20 LOCATIONS

* 높은 수입의 빵가게
* 후랜차이스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 완전히 훈련시킵니다.
* 모든 재정문제를 조정합니다.
* 우선 상업지대에 투자가능.
* 현금투자 35,000달러
* 예상첫해 매상 150,000달러

• 온타리오 전역에 좋은 위치
• 이윤좋은 각종 식빵 제조업
• 완전 자동 OVEN

김 영 창
전화 : 883-4550
1-826-715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IH9
☎:752-7771

새로운O.K BREAD 69¢ 로 등장

딜	PRODUCT	SIZE	PRICE & REBATE	RETAIL PRICE	MARGIN	EFFECTIVE
종전	O.K 빵 VARIETY	24OZ	73.9¢ & 6¢ 7%	88¢	23%	
신규	O.K 빵 "	24OZ 16OZ	65¢-Net Price 56¢ "	88¢ 69¢ 스페샬 싸인제공	26% 19%	Feb 2,82 6주후 예정
	VARIETY		종전과 동일 7%	77¢ 레귤라가격		

그간 수차례에 걸쳐 뎀스터브래드(Demster's Bread)와 협상을 가져온 집행부는 현재의 치열한그로서리 업계의 가격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타입의 자체상표 브래드 (O.K Bread)를 회원에게 추가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로프(loaf)당 16온스의 브래드로서 그 세일 가격은 69센트이며, 현재의 24온스 브래드와 병행공급되며, 그 선택은 회원 자유의사이다.

또한 가격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의 화이트·브래드(White, Bread)에 대한 홀세일(Wholesale)가격과 리베이트 제도의 병용을 없애고, 순수한 홀세일 가격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그비교표는 위와 같다.

체인스토어의 가격경쟁

회원스토어에 심각한 타격

지난해 가을부터 일기시작한 수퍼마켓들의 치열한 가격전쟁은 마침내 맥스(Macs)및 벡커(Beckers) 등 체인스토어에까지 파급되어 일부 회원들의 스토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즉 체인스토어들은 코너스토어의 주종품목인 담배 스몰싸이즈 한갑당 99¢, 2% 밀크배당 $1.88 센트 등 회원들이 구입하는 홀세일가격 이하로 덤핑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돈밀지역의 박모씨, 에진코트지역의 김모씨, 킹스톤지역의 강모씨등 회원스토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말하기를"현재 옆에 있는 맥스밀크에서 주종품목들을 원가이하의 덤핑세일을 함으로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생에도 불구하고 이윤 전무의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장기간 계속된다면 상점의생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러 측면에서 회사측과 접촉해 보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협회의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고충을 진정받은 협회 집행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상대방 회사의 간부진과의 대화, 협회고문변호사를 통한 온타리오주 상공성장관에게 서한발송, 언론을 통한 진정등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연구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강도잡을 준비를 완전히 한 경찰들처럼 썩썩한 태도로 아번에는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팍 붙잡아 버릴테니… 자신만만한(위험천만의)방어 작전이었다. 그래도 단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해만 지면 아빠와 교대를 했다.

드디어 예상했던 그날은 오고야 말았다. 그날은 아빠가 부득이 다른 도시로 외출을 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여서 내가 상점 문닫을때까지 있어야만 했다. 밤 9시쯤이었을까? 시누이가 Counter에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둥이가 나있는데는 돌아보지도않고 Counter로 갔다. 난 아주 이상한 예감에 시누이한테 빨리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했다. 시누이가 주춤주춤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강도가 Counter앞에 협박문을 내놓고 시누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난「빨리 나와」라고 한국말로 말하자 그 자는 총을 나에게 겨누며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미리 마음의 준비가되어 있었던 탓인지 두려움도 무서움도 내겐 없었다. 난 또박또박 큰소리로 말했다.「조금전에 은행에입금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돈은 하나도 없고 난 너희들 강도하곤 아예 질렸 으니(Fed up)빨리 나가라」다시 총을 시누이에게 겨누며종이봉투에 돈을 넣으라 했다. 난「그애는 Part time하기 때문에 돈이 어대있는줄도 모르고, 난 너에게 줄 돈도 없으니 쏠려면 날 쏴라」고 다시 화가나서 얘기했다. 그의 총구가 다시 나에게 겨누어졌다. 어쩌면 이럴때쯤 손님하나라도 들어 왔으면 좋으련만, 너무도 조용하기만 했다.

「너 미쳤구나」강도의 말이다.「그래 나도 미치고, 너도 미쳤다. 손님이 들어오기전에 나가지않으면 이걸로 널 칠거다」 사장바구니를 번쩍 들고 던지는 시늉을 했다. 만약에 발사할 경우를 생각해서 Carpet포가리를 잔뜩 담아논 큰box뒤로 숨을 생각이었다. 「넌 정말 미쳤구나. 돈 안주면 쏠테다」 짐짓 뒤로 물러서며 강도의 말이 끝나는 순간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강도는 그사이에 후닥딱달아나고 말았다. 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자를 뒤쫓을 정신이 없었다.

<계속>

회원 적립기금 공개

협회가 그 동안 회원 각개인구좌에 적립시켜온 액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는 1979년이래로 1월 각밀크회사와 Intercity잡지회사의 랙 디스플레이 수당 적립금등이 합해져 모아진 기금의 개인별 내용입니다. 회원번호별로 해당금액을 알리오니 이중으로 발표된 곳은 매매관계로 인수자와 인계자의 이니시얼을 표기했사오니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문의는 협회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읍니다.

101	$1254.31
102	143.02
	199.16
108	608.15
109	223.18
110	1219.27
111	448.83
112	811.56
114	7.36
116	362.73
117	299.13
120	42.45(K)
	497.14(Kwan)
121	234.37
122	247.00
123	650.70
124	72.00
125	416.79
126	46.09(K)
	532.94(L)
127	371.89
128	57.36
129	482.73
130	180.15
132	148.31
133	733.02
139	20.80
140	87.07
141	327.82(K.S)
	154.40(K.Y)
142	471.42
144	107.62(W)
	565.99(K)
145	33.30
146	316.44
147	151.41
149	505.95
150	212.81
151	92.11
152	765.12
153	301.79
154	16.64
155	45.42
157	57.30
158	352.47
159	69.90
161	49.14
162	36.92(S)
	513.48(K)
163	41.06
164	122.83
165	368.90
166	385.02
167	62.52
168	36.40
169	451.14
170	83.88
171	$28.94
174	36.41
175	116.44
176	75.90(Y)
	510.49(L)
178	163.21
179	215.16(K)
	75.88(K)
180	221.52
181	57.10
183	209.19
184	752.37
185	86.16(Bob)
	115.70(L)
186	90.38
187	303.77
189	348.89
191	584.50
192	84.64
193	623.95
201	217.84
202	32.82(C)
	197.32(B)
203	92.72
204	100.57
205	63.46
208	556.32
209	122.42
210	19.49
211	300.03
212	633.99
213	329.94
214	750.88
216	149.63(K)
	120.84(L)
217	120.15
218	1273.40
219	172.75
220	24.32
221	60.22
226	1301.06
231	176.32
232	315.83
234	1367.26
235	1176.46
236	360.11
237	561.03
238	282.99
239	162.13
240	135.70
242	66.97
243	244.80
245	22.64(K)
	139.80(W
246	89.53
247	110.35
248	341.40
249	$209.51
250	698.08
251	74.86
252	80.09
253	13.68
254	772.98
255	64.67 (C)
	151.34(Chung)
256	325.13
258	60.98
259	207.90
261	464.69
262	535.81
263	310.21
264	23.37
265	660.62
267	19.32
269	315.18
271	120.07
272	55.97
273	750.82
274	40.50
276	396.54
277	140.97
279	48.11
280	235.82
282	50.18
283	286.22
284	684.40
286	212.04
287	113.45
290	160.02
291	307.19
293	157.99
295	25.94
296	188.94
297	639.72
298	269.77
299	195.89
200-1	$411.03
200-2	164.20
200-4	85.82
200-5	48.18
	288.17
200-6	671.46(S)
	322.78(P)
200-9	213.62
200-11	286.42
200-12	599.20
200-13	343.58
200-14	421.62
200-16	191.70
200-18	336.56
220-20	214.94
200-21	159.23
200-24	318.92
200-25	398.78
200-27	103.71
200-30	31.48
200-32	139.79
200-34	97.41
200-41	115.88
301	$223.10(C)
	226.32(L)
302	224.80
303	808.22
305	294.92
306	274.07
307	108.96(L)
	216.94(C)
308	25.76
309	401.81(N)
	72.04(K)
310	534.29
311	621.94
312	26.96(C)
	112.28(W)
313	294.97
316	898.57
317	517.93
319	53.68
320	289.97
321	124.24(H)
	55.64(S)
322	731.22
323	22.88
325	579.13
327	309.61
329	43.04
330	428.80
332	124.54
333	161.68
334	243.47
335	25.22
337	499.49
341	303.92
343	151.14(S)
	49.12(C)
344	59.78
	270.28(H)
346	18.58(L)
	29.41(C)
347	151.40
348	344.89
349	872.98
350	185.28
351	366.69
353	496.98
354	113.12
355	172.44
356	175.29
357	731.44
360	67.63
361	297.71
362	131.69
363	59.33
365	$38.82
368	31.22
370	32.48
371	19.64
373	64.91
374	419.74
377	185.89
378	126.40
380	315.77
382	94.45
383	110.00
386	81.94
388	105.02(S)
	39.63(L)
	39.04(Ntina)
389	535.56
390	89.73
391	490.88
392	66.73
393	75.26(K)
	5.37(K.P)
397	613.40
398	5.44
300-2	$34.48
300-3	182.73
300-6	600.09
300-7	4.79
300-8	154.26
300-9	233.97
300-12	1061.20
300-13	204.42
300-15	401.95
300-16	257.60
300-17	381.37
	(K.S)
	303.01
	(K.J)
300-18	399.64
300-21	40.39
300-22	38.77
300-27	39.88
402	$57.64
404	845.14(K)
	191.22(L)
405	325.17
406	85.48
407	142.88
408	192.08
410	362.51
411	332.27
413	306.86
414	28.63
416	691.07
417	36.06
418	60.82
420	188.76
421	244.20
424	724.61
425	76.89
430	105.78
431	103.22
432	875.00
433	54.15
434	41.80
435	547.90
436	86.39
437	127.27
438	799.31
440	11.28(Y)
	8.41(L)
442	130.08
444	410.35(L.C)
	52.98(L.J)
449	618.11
501	246.91
502	535.07
503	600.31
504	197.73
505	174.17
506	228.23
507	106.15
509	112.76
510	348.02
512	175.65
513	508.85
516	321.20
517	27.04
518	26.42
519	231.79
520	474.47
521	38.46(S)
	14.39(L)
522	61.21
526	183.06
527	68.95(E)
	102.49(C)
529	101.58
530	283.81
531	$256.65
533	549.35
535	92.43
536	131.51
537	154.46
538	468.02
540	112.56
541	199.14
544	73.51
546	785.92
547	110.55
549	346.35
550	397.97
551	180.21(C)
	502.19(J)
552	76.93
553	127.82
555	469.04
556	610.97
559	3981.18
560	160.32(M)
	389.32(H)
561	280.25
562	456.70
564	152.01
565	201.93
566	40.08(L)
	115.20(K)
567	42.85
568	30.53
569	45.77
601	229.08
602	9.04
603	165.00
606	273.93
607	134.09
608	508.14
609	62.30
611	376.02
612	54.98
617	495.08
618	227.54
619	1000.18
621	950.56
623	244.28
627	531.04
629	144.11
630	990.66
631	87.06(W)
	26.85(L)
632	884.33
633	78.06(P)
	17.51(C)
636	45.80
638	341.67(C)
	194.17(Y)
640	100.50
641	$377.73
647	455.96
648	16.93
650	56.46
653	214.15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멋,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채용공고◇

본 협회는 회칙 제4조, 10조 집행부 조직의 확대에 의거하여 아래와같이 상담실장을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자 격 : 따뜻한 동포애와 사명감을 갖고 협회발전에 기여하여 회원들의 Complain 상담에 응하여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원만한 인품을 가진 분.

근 무 : 주3일 5시간씩(현재는 Part time이지만 앞으로 Full time으로 될 예정)

대 우 : 능력에따라 우대함.

구비서류 : 한글및 영문이력서 1매

※상기구비서류를 2월25일까지 협회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우송할것.

채용발표 : 1982년3월1일

※자세한 내용은 협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람

전 화 : 752-7771, 752-7773.

1982년1월20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

협회장 : 차 선 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外相회담 3월末개최 有力

日外相·崔大使요담
經協문제 무期타결에 합의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제1차 고위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 이를 계기로 제2차고위실무회담을 東京에서 열고, 3월과 4월초 서울에서 外相회담을 열어 현안문제인 한일간의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할 방침을 굳혔다.

스즈끼(鈴木) 일본수상은 18일 사꾸라우찌(櫻內)외상과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과함께 對韓경협문제를 협의하고 서울에서 열린 실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기우찌(木內) 아시아국장을불러 보고를 들은뒤 2월중순 제2차실무자회의에 이어 조속히 외상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崔慶祿대사는 이날상오10시 외무성에서 약15분동안 사꾸라우찌외상과 회담하고 쌍방이 경협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것에 합의했다.

사꾸라우찌외상은 서울에서 열린 제1차실무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데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2월중순 제2차실무자회담을 東京에서 열자고 정식 제의했다.

이에대해 崔대사는 일본측의 희망을 본국에 전달, 양국간의 협조로 하루빨리 경협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黨6役 일괄辭退 白紙化
民韓, 개별적으로 辭表제출할듯

民韓黨의 黨6役들은 18일상오 서울汝矣島 반노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黨職者들의 一括辭表제출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못한가운데 일부 黨職者들이 개별적인 辭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黨職辭退문제는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되었다.

이날 약2시간반에걸친 회의가끝난뒤 辛相佑사무총장은『一括사퇴문제에 합의점을 찾지못해 이문제는 사실상白紙化됐다』고 발표하고『이에따라 黨職者들의 去就는 各者가알아서할 개인적인문제』라고 말했는데 대다수가 柳致松총재에게 일단 사표를 제출,再新任을 물을것으로 보인다.

辛相佑사무총장, 高在淸총무, 韓英洙정책심의회의장, 金鉉圭훈련원장, 柳漢烈당기위원장, 金文錫인권옹호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辛총장, 韓의장, 金원장등은『당의 활성화를 위하고 총재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는뜻에서 黨6役이 일괄사표를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高총무와 柳위원장은『총재가 원치않는 당직사퇴를 할수없으며 이문제는 일단 총재에게 상의해보고결정하자』고반대의사를밝혔다.

黨6役간의 일괄사퇴문제가 일단白紙化됨에 따라 韓의장은 19일께당직을 사퇴할것을 분명히했고 金원장, 金인권옹호위원장등도 같은의견을 밝히고있으며 辛총장도『당운영에관한 총재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파악한후 결정하겠다』고 말해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개별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할것으로 보인다.

22일 臨時國會 어제 召集公告

丁來赫국회의장은 제109회 임시국회를 오는22일하오2시 汝矣島 국회의사당에 소집한다고 18일하오 公告했다. 丁의장은 이날 公告에서 헌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국회법제6조의 규정에따라 제109회 임시회를 22일하오2시에 소집한다고 밝혔다.

美에 世紀的 酷寒

2週째猛威…2백70명 死亡
北部지방선 零下 44度까지

【워싱턴17日外信=綜合】강풍과 폭설을 동반한채 美대륙을 강타하고있는 20세기최악의「살인한파」가 2주일째 맹위를 떨치면서 17일까지 모두 2백7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시베리아특급이란 별명까지붙은 이번의 한파는 캐나다로부터 美남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시속80~2백19㎞의 강풍과 폭설까지 동반, 공항과고속도로의 교통장애는 물론이며 곳곳에서 정전소동을 일으키는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空港·고속도로 두절…곳곳서 停電소동
英·佛·蘇등 유럽大陸엔 때아닌 洪水도

미국의 오하이오, 위스콘신, 뉴욕州등 북부지방에서는 17일새벽의 기온으로 20세기최저기온을 기록, 밀워키에서는 영하32도, 미네소타의 이사벨라는 영하44도로 체감온도가 영하74도나 됐다. 평상시 기후가 불순한 버팔론은 영하26도에 혹독한바람까지 동반하여 체감온도가 영하62도까지 내려갔다. 또 콜로라도에는 17일 이른새벽부터 시속 2백19㎞의 강풍이 몰아쳐 보울더街의지붕들이 부숴지고 유리창이박살나는 바람에 민가와상가의 약40%나 피해를 입고 15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바람에 날아온 유리조각을 맞았다. 영하18도이하로 수은주가 떨어진 뉴욕에서는 옷을두텁게 입은 2개월짜리 어린아기가 난방이안된 아파트침대에 누운지 수시간만에 얼어죽은 사고도 발생했다.

워싱턴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지난13일의 비행기추락사고후 사고수습을 채끝내지못한 당국은 17일 기온이 영하21도까지 내려가자 포토맥강에서의 시체수색작업을 중단해야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주 유럽, 프랑스, 영국등 東西歐지역은 지난주말부터 한파가 풀리면서 강물이 위험수위에 육박하는등 또다른 天災를 겪고있다. 모스크바에서는 폭설로 한 로보트공장이 붕괴,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으며 시내의 공공기관들이 거의마비된 상태에있다.

◇폴란드의 비슬라강이 범람, 홍수가 발생한 플로크부근의 한마을에서 침수된 집채위에서 한남자가 구조를 요청하고있다. 【바르샤바17日AP電=聯合】

체감온도란? 피부로 느끼는溫度

체감온도란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와달리 사람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온도를 말한다. 사람의 신체에서는 계속 수분이 증발하는데 바람이부는방향과 양에따라 피부에서 증발하는 수분의양도커져 겨울엔 추위를 더심하게느끼게 마련이다.

체감온도는 보통기온에 바람이 더해주는 한랭 효과(wind chill effect)를 더해서 산출한다.

즉 바람이 시속10노트(18㎞)로 불경우 영하5도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11도, 영하15도에서는 영하23도, 영하20도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30도가 된다.

中部 오늘零下14도

기상대 湖南·忠淸지방 大雪주의보

세계곳곳에서 영하40도가 넘는 혹한과 폭설이 휩쓸고 있는가운데 우리나라는 18일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이 예년보다 3~4도가 높은 영하6도안팎의 분포를 보였으나 이날하오부터는 수은주가 다시 떨어져 19일아침에는영하14도의 추위가 닥친다.

중앙기상대는 사할린과 일본북부, 우리나라에 걸쳐있는 기압골이 동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발이 비치는 날씨가 되다가 18일하오부터는 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거온이점차떨어져 19일아침 서울지방은 영하13도, 중부지방은 영하8~14도, 남부지방은 영하7~1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앙기상대는 또 20일부터는 기온이 다소올라가 중부지방에서는 영하10도안팎의 평년기온을 되찾겠고 월말께 다시한번 추워질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18일상오7시를 기해 호남서해안과 충청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하고 상오10시를 기해서는 서해일원과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내렸다.

호남과 충청지방의 예상적설량은 10~15㎝.

駐佛美대사관 武官 出勤길에 被擊사망

【파리18日路透=聯合】파리주재 미대사관 무관 제임즈·찰즈레이중령이 18일 서부파리에 소재한 자택에서 출근길에 총격을받고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파리주재 미대사관 대변인은 이 피살사건을 즉각 확인하지 않았다.

佛憲法委, 기업國有化 거부

【파리17日AP=聯合】프랑스헌법위원회는 16일 사회당정부가 제출한 5개대기업과 38개민간금융회사에 대한 국유화법안이 프랑스헌법에 위배되는것이라고 판시, 프랑스와·미테랑사회당 정부의 국유화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및 조약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유화 법안을▲민간인주주에 대한 보상문제▲국유화대상회사의 이사및 회장에게 부여될 경영권문제▲상호공제조합및 협동조합이 소유한 3개은행을 국유화대상에서 제외한점등 3개항의 이유를들어 거부했다. 특히 헌법위원회는 3개특정은행을 국유화대상에서 제외한것은 헌법이 규정한「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헌법위원회의 이같은 거부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국유화계획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애써 지적하면서 오는 20일 각료회의를 개최, 그 대책을 토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상집무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위원회가 주주에 대한 보상액증액등을이유로 정부의 국유화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이법안의 효력발생이지연되고 강조, 의회의 재표결에 앞서 모종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對間諜대책本部長 合參議長이 겸직

정부는 지금까지 합참본부장이 겸직하고있던 대간첩대책본부장직을 앞으로는 합참의장이 맡도록 지난1일자로 조치했다고 18일 국방부가발표했다.

佛社會黨 上院의원 來韓
盧外務예방, 兩國관심사등 論議

盧信永외무장관은 18일 訪韓중인 프랑스정부의 特使이자 미테랑 대통령의 외교담당보좌관인 필립·마슈페르上院의원의 예방을받고 요담했다. 이날상오외무장관실에서 1시간45분동안 계속된 요담에서는 南北韓문제와 韓·프랑스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및 국제정세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고 柳志鎬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요담은 특히 마슈페르의원이 지난해12월11일 平壤을 방문한것을 비롯 지난77년이후 지금까지 1차례에 걸쳐 北韓을 방문한바 있는 프랑스社會黨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외교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盧장관은 이날 요담에서 평화적對話재개를 위한 1·12및 6·5提議의 배경과 關係國들의 南北韓交叉承認에 관한 정부의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南北韓의 동시유엔가입에 반대해온 北韓의 비합리적태도를 아울러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離任 스페인大使에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8일하오 청와대에서 루이스·쿠에르보駐韓스페인대사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勳章 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 金容植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丁國會議長도 예방

丁來赫국회의장은 18일 하오 국회의장실에서 訪韓중인 필립·마슈페르프랑스上院의원의 예방을 받고 韓·프랑스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被擊당한 日유조선은 反政게릴라 武器輸送"

로물로比外相 "停船 警告사격 무시해 攻擊"

【마닐라18日AP=聯合】카를로스·로물로 필리핀외상은 일본유조선 헤그호는 반정부테러주의자를 수송중이라는 혐의를 잡고 해·공군이 공격을 단행케된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로물로외상은 이날 다나까 히데오駐比일본대사와 만난후 성명을 발표, 피격유조선이 반정부테러용의자들과 폭발물등 약1천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송중이었다고 밝혔다.

로물로외상은 이성명에서 필리핀해군초계정과 공군기들이 필리핀회교분리주의게릴라거점인 민다나오섬에서 약18㎞떨어진 해상에있는 한 국적불명의 유조선을 발견, 정지토록 충분한 경고사격을 했으나 이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필리핀 남부지역군사령관은 로물로외상 성명이 발표되기직전인 이날 상오 2대의 필리핀공군기들이 타바오섬 동부지역 밖에있던 국적불명의 한선박에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었으며 일본측은 이배가 5천3백7톤급유조선 헤그號임을 확인했다.

負傷 한국인船員 위험한상태 넘겨

【東京16日AP=聯合】필리핀근해에서 15일 정체불명의 항공기에 피격당한 일본화물선 헤그호는 필리핀공군소속 T28D전투기들에 의해 필리핀의 反정부게릴라들을위한 비밀보급선으로 오인받았을지 모른다고 日本관리들이 16일 말했다.

成哲煥씨 21일歸國

일본油槽船에 승선중 필리핀海上에서 國籍未詳의 空軍機에 被擊당한 한국인선원 成哲煥씨(20·한국일보17일字1면참조)는 현재 오끼나와소재 병원에서 가료중이며 상처가 호전되는대로 빠르면 21일 피습당한 유조선에실려 釜山에 入港할 예정이라고 18일 외무부가 밝혔다.

成씨는 다리와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기력을 회복, 船上치료를 받은후 오끼나와병원에 入院 가료중이라고 외무부관계자는 밝혔다.

社會漫評

이상 寒波

地平線

한반도의 기후가 지금처럼 된것은 대충 2천년전의 일이었다. 이때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일어나는 기원전후다. 한때 평안도에 물소가 살았을만큼 더웠던 날씨가 3천년전쯤에 추워지기 시작했다한다. 그러다가 기원전후에는 추위가 풀려 지금처럼 됐다는 것이다. 「찬란한 3국시대」란 신석기시대처럼 덥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따뜻한 날씨의 덕분이다.▼지금의 북극지대에도 야자나무나 악어같은 열대지방 동식물 화석이 묻혀있다고 한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4천만년전에는 북극지방이 더웠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극을 덮고있는 얼음 두께는 자그마치 5리가 넘는다고한다. 그린란드에서 미국·스위스·덴마크의 합동조사반이 얼음을 파봤더니 2천36m나 됐다는 것이다.▼그린란드의 서쪽해안은 북반구에서 떠도는 빙산의 약90%를 만들어 흘려보내는 아이스·박스다. 북반구에 떠도는 빙산은 1년에 2만개쯤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관측된 기온으로 가장 낮은 기록은 남극의 보스토크기지에서 관측된 것이다. 60년8월24일 섭씨 영하88도3부였다. 두꺼운 얼음이 덮고있는 남북극은 말하자면 지구기온의 균형을 좌우하는 냉방장치다.▼지구가 더워지고 있느냐 차가와지고 있느냐 하는 입씨름은 지금도 결말이 나지않고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보고들은 기온이 올라가고있다는 쪽으로 기울고있는 것같다. 미국의 고다드우주비행연구소는 대기오염때문에 일어나는 기후의 파탄이 40년뒤로 다가오고있다고 경고하고있다. 이러한 경고는 예상보다 파탄이 20년 앞지를 것으로 본는 것이다.▼더워지는 원인은 탄산가스 때문만은 아니라는게 새로운 연구결과 주장되고 있다. 질산가스, 메탄가스, 오존, 그리고 냉동제로 쓰는 프레온가스가 덧붙여지고있다. 콜럼비아대학 연구팀도 남극의 여름철 얼음이 30년대보다도 눈에 띄게 줄고있다고 보고하고있다. 바닷물이 불어 해안지대가 넘치고, 지금의 곡창지대는 사막이 되는 비극의 시초라는 주장이다.▼긴눈으로 볼때 지구가 가마솥처럼 뜨거워지고있다고해도 공해가 가져오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갖가지 조화를 부릴수가있다. 북미대륙과 유럽을 덮치고있는 살인적인 추위가 그런 조화때문일지도 모른다. 전세계의 날씨를 감시하는 미국의 환경평가센터나, 세계최고의 컴퓨터로 유럽과 ○○국들을 커버하고있는 영국기상국까지는 못간다해도 우리도 기상과학에 [illegibl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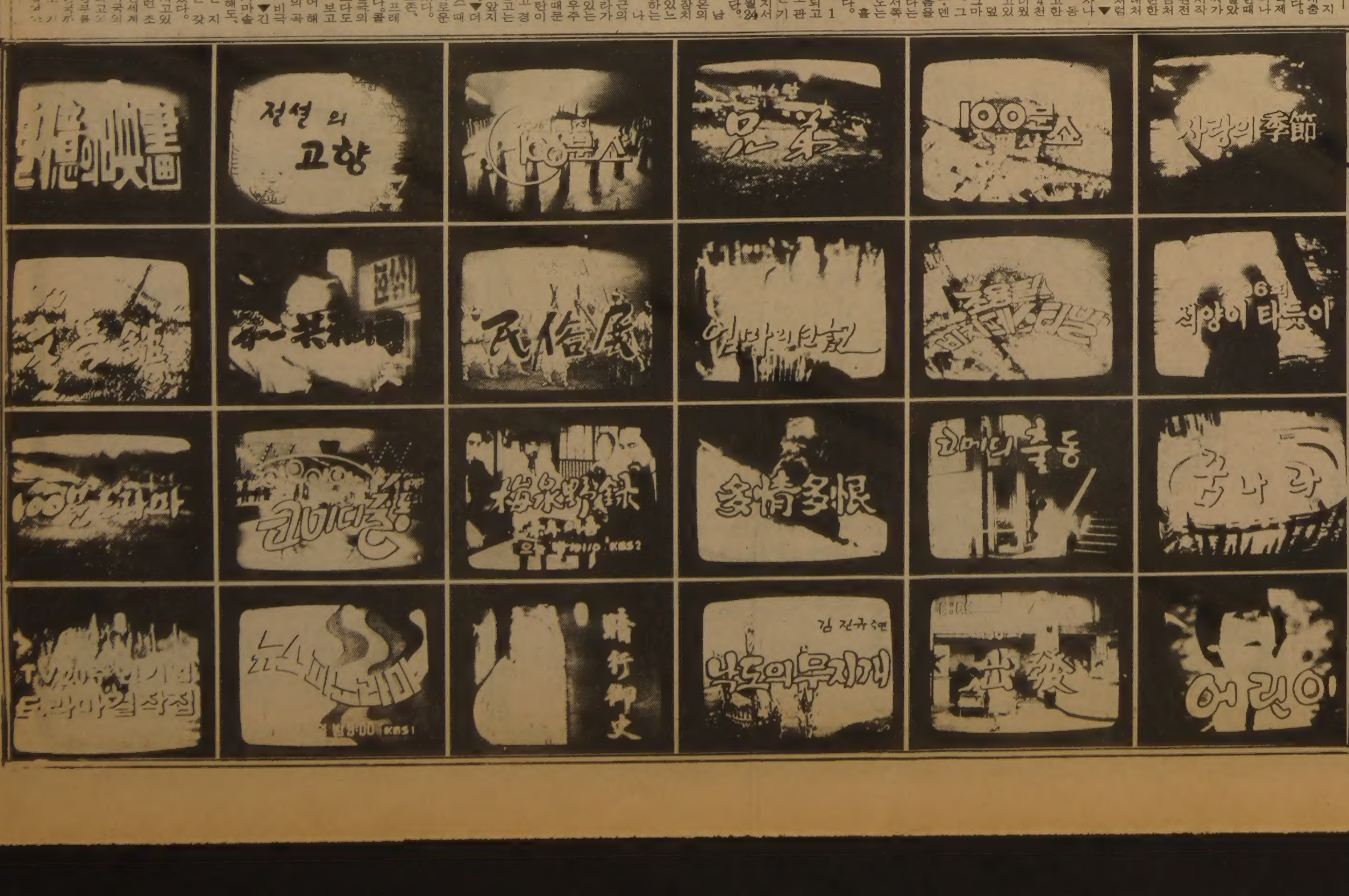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 학녀,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 역마, 배따라기, 청산대, 우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청제, 메밀꽃필 무렵등….
영화 —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 —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 — 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 간첩채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 팔도대향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향전, 푸른 조국, 청자및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 소망, 부부, 한국의 미, 말뚝가족등 10여편
기타 — 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신일상고)
경연대회 —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족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준결선
어린이용 — 우주 대작전, 꿈나라, 로험소년, 15소년표류기, 축의의 요소, 정의의 세계여가, 와이번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약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엄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 [illegible] 매월 20여편의 뉴 페이 만원이 [illegible]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 A BLOOR ST. W TORONTO

도지어將軍은 處刑됐는가…

「붉은旅團」서 拉致 1개월…完全犯罪化 노려

「도지어는 이미 처형됐다」는 전화가 17일 이탈리아 ANSA통신사에 걸려왔다.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이 이탈리아 도시게릴라「붉은旅團」에 의해 납치된지 꼭 1달만의 일이다. 이탈리아경찰과 검은안경의 사나이들(美CIA요원)은 도지어장군이 아직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테러문제전문가들은 모로前수상과같이 비참히 살해됐거나 살해될 것으로 보고있다.

테러사건을 전담해온 페르디난도·임포시마토판사는 도지어납치범들은 붉은여단가운데매派로서 『살해』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있어 도지어는 살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로마등 주요도시에서 발견된 붉은여단의 4번째 성명도 NATO및 도지어장군에대한 죄상만 되풀이했을뿐 전번과 마찬가지로 인질금이나 조건등을 내놓지 않고있다.

미국및 이탈리아정부는 도지어 납치사건에 관해서는 어떤협상에도 응하지않겠다면서 붉은여단과의 일전을 다지고있다.

美國겨냥한 「교란作戰」

사실 미국정부는 붉은여단이 노리는 작전 즉 『美제국주의와의 전쟁』이란 테러의 국제정치화시도에 휘말려들지않으려 고심해왔다. 80년 테러리스트대소탕작전을 펴1천여명의 좌익테러분자들을 체포했던 이탈리아정부도 최근 붉은여단의 역습을 계기로 테러리즘의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全國 샅샅이 뒤져도 五里霧中

전문가들 "伊前首相처럼 被殺"

지난한달동안 이탈리아경찰 2천여명은 수륙양용전차, 헬機, 군견등을 동원, 도지어가 납치된 베로나를 중심으로 북부이탈리아등 전국을 이잡듯 뒤졌지만 붉은 여단의 은신처, 무기저장소, 10명의 붉은여단수배자등이 걸려들었을뿐 도지어장군의 행방은 전혀 잡지못했다. 지난9일 로마의 한아파트에서 경찰은 그동안 쫓던 거물테러리스트인 지오반니·센자니(42)를 체포하는 개과를 올렸다. 센자니는 붉은여단의 최근납치사건을 배후조정한 혐의가 있어 경찰은 도지어 은닉처를 알고있을 것으로 보고 캐고 있다.

센자니는 붉은여단에 가담하기전에는 플로렌스대학에서 범죄학을 강의했다.

이밖에 또 거물급게릴라인 리카르도·두라, 지난 6일 로마경시청 反테러반의 시모네부반장을 저격한 테러사건에 연루된 마시밀리아노·코르시(27), 북부에서 붉은여단 비밀회의를 마치고 로마에 돌아온 프란카·무시女人(27)등을 체포했으나 아직 도지어의 행방은 뚜렷하지않다.

그러나 테러분자들은 이런 검거선풍에 기세를 숙이지 않고있다.

지난10일에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로비고여자형무소의 벽을 폭파, 4명의 붉은여단女단원을 탈출시켰다. 테러분자들은 자동차에 폭발물을 장치, 감옥벽을 뚫고 수감자에게 자동소총을 건네주는 스크린속 탈주극같은 장면을 벌이고 동료를 구해냈다. 고도의 훈련과 막대한 자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맞선 이탈리아 경찰및 정부당국의 태도도 어느때보다 강하다.

여지껏 이탈리아정부는 테러분자들 배후에는 KGB, PLO, 리비아등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어사건을 계기로 그 배후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검찰당국은 알도·모로前수상납치 살해사건의 기소장에서 『붉은여단및 前線등 이탈리아도시게릴라들에게 소련과 리비아는 팔레스타인기구를 통해 무기를 공급하고있다』고 소련의 배후설을 밝혔다.

임포시마토판사는 현재 수배를 받고있는 극좌테러리스트 마우리지오·폴리지가 지난 수년동안 중동지방을 수없이 드나들며 샘7지대공미사일, 對전차로키트포, 칼라츠니코프 기관단총(소련제)등을 도시게릴라들에게 공급해왔다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들고나왔다.

그는 17일 일·메사제로紙와의 인터뷰에서 지난78년까지 이스라엘정보기관이 이탈리아정권의 정복을위해 극우및 극좌에게 모두 무기를 공급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정부는 78년 로모 前수상 살해이후 55일만에 1천여명의 테러리스트를 검거, 붉은여단, 「戰線」, 「노동자동맹」등의 테러단체가 소멸된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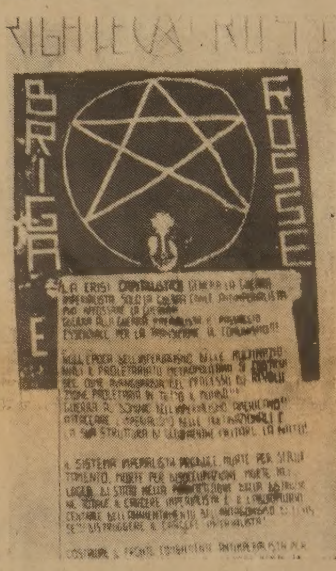
테러연구가들은 붉은여단이 도지어 납치사건을 연출한것은 유럽의 極좌左派에 일고있는 反美주의에 한가지 공헌을하고 또 여지껏 국내 저명인사 납치, 살해, 공장폭파등으로 테러에 식상해있는 이탈리아 대중에게 「테러·쇼」를 보여줘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속셈에서 나온것으로 보고있다.

이때문에 이탈리아정부는 長靴반도가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것은 좋지만 테러를지원하는 소련공산권하에 있을 수없음을 명백히하고 「쇼」을 간접제작한 제작자를 나무란는게 분명하다.

이번사건에서 테러분자들은 그들의 작전을 미국으로까지 확대하려 했다. 미국에서 이사건에 대한 반응이 적자 이들은 로마의 뉴욕·타임즈지사에 성명서 사본을 보내기도 했다. 붉은여단의 목적을 미국인에게 알리려는 「홍보」지만 대부분 미국언론은 이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고있다.

한 장군의 생명을 얻더라도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수 없다는것을 확인시키고 싶은게 분명하다.

【崔海雲기자】



◇「붉은旅團」이 뿌린 성명서
도지어 美육군준장을 납치한 「붉은旅團」이 16일 로마등 이탈리아 주요도시에뿌린 도지어장군의모습이 담긴 4번째의 성명서사본. 「붉은旅團」깃발아래 도지어장군이 서명서를 들고있다. 【로마16日AP電送=聯合】

"美·中共관계 적극仲裁"

日政府、"對臺灣무기공급 調整" 日紙보도

【東京16日聯=聯】일본정부는 미국의 對臺灣무기공급을 둘러싸고 긴장상태에 있는 미·중공관계를 조정하기위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벌이고있다고 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 東京에서 열린 제2차 日·中共각료회의에서 중공측이 일본정부에 대해 미국으로하여금 臺灣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지하도록 종용해줄것을 요청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佛憲法委「국유화法案」違憲판결로

미테랑政權 큰 試鍊

下院 보궐選擧서도 참패

惡化된 經濟難局등이 요인

◇出帆 8개월만의 시련… 出帆8개월만에 최대시련에 봉착한 미테랑대통령과 모르와수상.

미테랑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사회당정권은 헌법위원회의 국유화법안 違憲판결과 4군데 하원보궐선거에서의 예상외의 참패로 인해 出帆8개월만에 가장 큰 시련에 봉착했다. 이와같은 사회당정권의 시련은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프랑스의 경제난국에 우선 그 원인을 찾을수있을것같다.

미테랑은 집권공약으로 주요산업및 은행의 국유화와 부유세 신설등 경제改革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경제사정은 조금도 나아진게 없다.

실업자수는 지난 6월의 1백60만에서 2백만으로 증가했고 기업의 도산은 지스카르 前 대통령때보다 30%가 증가했다.

불투명한 미테랑의 경제改革조치는 부유층의 해외재산도피를 가져왔고 기업가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난을 더했다.

미테랑은 집권초기에 호전되지않는 프랑스경제의 책임을 「지스카르前대통령의 유산」으로 돌려왔으나 8개월이흐른 지금 이말은 설득력을 잃어 버렸다.

특히 이번보궐선거가 실시된지역은 지난6월의 총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다는 헌법위원회의 판결에의한 선거였기때문에 선거참패가 사회당에주는 아픔은 더욱 컸다.

4군데 보궐선거중 3군데는 사회당이 이겼던곳이었다.

헌법위원회는 국유화법안의 違憲근거도 민간주주에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작년10월 사회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있는 하원을 통과한 이법안은 36개은행및 5개의 대기업과 2개의 금융회사의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효력발생의마지막 관문인 헌법위원회심사에서 제동이걸린것이다.

보상이 미흡하다는 헌법안규정대로라도 완전한 보상에는 약3백억프랑(韓貨약3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작년의 재정적자 약20억프랑(韓貨약2천4백억원)과 함께 미테랑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큰 입거리다.

하지만 미테랑이 집권이래 처음 당면한 이번 시련이 사회당정부에 어떤결정적타격을 줄것같지는않다.

사회당은 하원에서 2백83석 (총의석 4백91석, 보수파 1백53석) 이라는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非常大權을부여한 절대주의적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기때문이다.

사회당은 즉시 비상각의를 소집하고 헌법위원회의 違憲판결이 국유화 계획자체를 거부한것은 아니라고 판단, 문제가된 보상조치부분을 강화, 의회의 재표결에 회부할것으로 알려졌다. 【李炳圭기자】

◇교체되는 波의장대 폴란드軍 의장대들이 17일 폴란드해방 37주년을 맞아 바르샤바에있는 무명용사 기념관앞에서 다른병사들과 교대하고있다. 이들이쓴 사각모는 폴란드軍의 전통적인 군모로 2차대전후 처음으로 공식 사용된것이다. 【바르샤바17日UPI電送=聯合】

波軍、言論 統廢合 단행

전국 42個新聞을 22개로

【바르샤바16日AP=聯】폴란드군사당국은 계엄선포후 16일 현재까지 42개 일간지를 22개로 줄이고 수백개의 다른 출판물을 폐간하는등 국내언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 12월13일 계엄선포 수시간후 군사당국은 언론기관을 폐쇄하고 수천명의 기자들과 편집자들을 해고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었다.

계엄선포 첫날 전국적으로 출판된 신문은 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두와 군기관지 줄니에르주·볼노스키등 단 2개뿐이었다.

한편 지방신문들의 숫자는 40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는데 실레지아 지방에서는 폴란드 최대발행부수의 일간지이자 지방당기관지인 트리부나·로보트니카를 포함, 3개 신문이 모니토르·폴노스라스키라는 신문에 흡수되었다.

"波 軟禁바웬사 곧釋放"

駐英波대사밝혀…軍政선 否認

【바르샤바17日AP=聯】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매우 가까운장래 석방될것이며 계엄령도 길어야 2, 3주후에 해제될것이라고 영국주재 폴란드대사 스테판·스타니체프스키가 17일 말했다.

스타니체프스키는 폴란드군사당국이 지난해 12월13일 계엄령선포이래 처음으로 가톨릭교회 미사의 TV중계를 허용하는등 해빙징조를 보인 몇가지 조치를 취한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을 만난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폴란드정세가 호전됨에따라 계엄령이 앞으로 길어야 2、3주 정도만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이같은 발언은 바르샤바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바르샤바17日AP=聯】폴란드계엄당국은 17일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곧 연금상태에서 풀려날것이라는 주영폴란드대사의 말을 부인했다.

폴란드계엄사령관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의 보좌관 비스와프·고르니키대위는 이날 스테판·스타니체프스키

"美성급한 對外經濟제재는 美자신이 더 큰被害"

WP紙, 對蘇制裁조치싸고 主張

【워싱턴17日=聯】미국이 너무 성급히 對外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것은 외교에 자신이 없기때문이며 그결과 제재대상국보다 미국자신이 더 큰피해를 입는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17일 보도했다.

지난20년간의 對중공전면금수조치는 중공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채 방대한 중공시장에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미국의 카스트로 대통령에대한 오랜 對쿠바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쿠바군이 앙골라에 아직주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사태의 경우처럼 이번의 對蘇제재조치도 소련의 폴란드정책을 변경시킬수없을것이라고 이신문은 주장했다.

이신문은 폴란드사태와 관련된 최근의 對蘇제재조치로 미 캐터필러·트랙터社는 천연가스관 부설장비 8천만달러, 제너럴·일렉트릭社는 1억7천5백만달러를 손해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카터대통령의 對리비아금지로 보잉社는 리비아와의 판매계약을 상실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蘇海軍 세계最強"

7艦隊대변인 "美軍事力능가"

【마닐라16日AP=聯】소련은 지난10년동안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킨결과 미해군력을 능가하는 세계최강의 해군을 갖게되었다고 15일 미 제7함대 대변인이 말했다.

7함대의 정보책임자겸대변인인 鄭·맥넬리소령은 7함대가 4일간의 예정으로 마닐라를 방문한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하고 蘇聯의 해군력증강이 미해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아리

韓·中·日의 詩心

우리나라와 자유중국및일본의 세나라 시인약 70명이 15일 타이페이의 「군영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현대 아시아의 시인연맹 결성을 논의했다는 외신이다.

시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통합된 언어의 음악적 요소와 회화적 요소에 의해 읽는 사람의 감각과 감정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깊은 감명 또는 고양된 존재감을 얻게하는 문학작품의 한가지라 일러온다.

그런데 시에는 많은 감화적인 혹은 정동적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언어의 선택과 배열과 구성이 따라야 한다.

즉 시와 산문의 차이는 무용과 보행의 차와 흡사한것이라고 프랑스의 시인 폴·발레리는 말한바 있다. 산문은 보행과 같이 어느 목표지점에 닿는것을 목적으로 삼으나 시는 무용과 같이 행위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에 대해서는 「시란 미의 음률적인 창조」라느니 「시는 인생의 비평」이라느니 하여 여러사람이 여러 갈래의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시가 산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나 윤리와 깊은 상관을 지녀왔다.

성당의 시성인 두보가 시를 빌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거듭했고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관심을 보였던것이 그와같은 예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삼국유사에 보이는 향가를 비롯해서 한시며, 시조며, 시심과 다양한 시의 형식에 있어서 결코 동양삼국을 통해 와설지언정 뒤지지는 않았고 개화기이후 신문학운동과 때를 같이한 신시에 있어서도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었다.

미구에 결성되리라는 「현대아시아시인연맹」의 준비를위해 모인 이들 세나라의 시인들은 사랑을 주제로하는 첫 현대 「아시아」시집을 출간했다고 한다.

한·중·일 세나라 시인들의 모임이 그들의 시심과 시를 통하여 아시아 여러나라는 말할것도 없고 세계 많은나라로 사랑을 확산시키는 모체가 되도록 기대하고 싶다.

LA서 「友情의 종각」헌당식

【로스앤젤레스16日=聯】한미 『우정의 종각』헌당식이 16일 로스앤젤레스의 산·페드로·에인절수·게이트공원에서 거행됐다. 駐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최로 열린 이날 헌당식에는 韓·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시장, 朴民秀한국총영사와 교민등 많은 한미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헌당식이 끝난후 LA에있는 「국악원」에서 고전음악과 무용공연이 있었다.

대통령 被擊說부인

수단 高位관리밝혀

【카이로16日AP=聯】수단고위관리들은 16일 가파르·누메이리 수단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으며 군부내에 심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리비아의 보도들을 부인했다.

주영수단대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外相職 사임할듯

黃華、건강악화로

【北京16日AP=聯】중공부수상 黃華가 건강악화로 외상직을 사임해야할지 모른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外信알레야

◆美、水中트라이던트發射성공=美海軍최초의 트라이던트미사일잠수함 오하이오號는 17일상오9시11분(현지시간) 플로리다 해안에서 최초의 수중 트라이던트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해군당국이 발표했다.

미해군최초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잠수함 오하이오號는 기존 포세이돈미사일잠수함이 16기의 포세이돈미사일을 적재하고있는 반면 각각 별개의 목표물을 명중시킬수있는 다탄두 트라이던트미사일 24기를 적재하고있다. 【케이프카내베랄=AP】

◆英국영鐵道 세번째罷行 중단=영국의 국영철도는 2만5천명의 기관사들이 지난주에 이어 17일 또다시 산발적인 파업을 벌임으로써 지난5일동안 3번째로 운행이 중단됐다.

업계소식통들은 임금 3%인상을 내걸고 경영진과 분규를 빚고있는 기관사노조(ASLEF)가 전면파업을 결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관사들의 파업으로 하루에 1천1백40만달러의 손해를 보고있는 국영철도측은 19일 긴급이사회를열어 철도의 전면폐쇄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런던=UPI】

카페인 發癌說부인

★日癌研、4년전발표번복

【東京18日=宋孝楠특파원】코피·홍차는 발암물질이아니다. 코피와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던 일본의 암연구소는 4년만에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정정, 발표했다.

암연구소 다까야마(高山)부소장은 지난 74~76년까지 2년동안 3백마리의 흰쥐에 ①카페인 0.2%가 들어 있는물과 ②0.1%가 들은물 ③보통물을 먹인결과 ①카페인 0.2%를 먹인 실험쥐에서 자궁·갑상선·뇌하수체암이 많이 발생하여 카페인이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후 보통물을 먹은 실험쥐 40마리가 실험 15개월만에 유행성감기에 의한 폐렴으로 죽었기때문에 통계상의 문제가 생겨 78년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되풀이했다. 그결과 카페인이 들어있는 물을 먹은 쥐나 맹물을먹은 쥐 모두 같은 사망률을 나타내 카페인은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정정발표했다.

海外토픽

惡漢·叛逆者사진展

★蘇聯、이미지개선운동을

소련사상 가장 악명높은악한과 정치배반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소련경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중심부의 한지붕아래서 전시되고있다.

박물관전시장에는 흉악범과 반란자들의 모습을 담은 무서운 표정의 희미한 사진들이 전시된가운데 겨루때 손가락에대고 사용하던 쇠붙이를 비롯하여 엽지손가락을죄는 고문용 기구·단검·소총등 기괴한 도구들도 진열되어있다.

붉은 카피트가 깔린 전시장에 대한 사전시찰을 겸한 당국의 안내자가 蘇정권에대한반대세력을분쇄하기위해 1917년에 창설된 정치사찰기관인 체카(비상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자료전시장까지 안내하고있다. 【모스크바=聯】

化肥·化纖분야置重 北傀 금년에

【서울=聯】北傀는 금년도 경제계획가운데 화학공업분야에서는 부족되는 화학비료의 증산과함께 주민생활필수품과직결되는화학섬유부문증산에치중할것으로보인다.

北傀、電力增産촉구

【서울=聯】만성적인 경제난국복을 위해 강행중인 제2차 7개년경제계획(78~84년)의 추진실적이 극히 不振한실정임을 실토하고있는 北傀는 최근 전체電力부문종사자들에 대해 기술규정·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준수、電力생산정상화에 만전을기해야한다고 강조、電力需給이 여의치 못한 실정임을 示唆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 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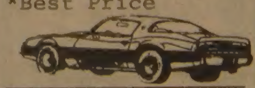
캐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 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民事사건 上告가 줄었다

—작년 「소송特例法」 실시이후

민사상고사건이 사실상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3월1일부터시행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따른 효과로 사법부최대의 고질이었던 상고남발경향을 잡는데 일단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에따른 대법원규칙의 보완과 활발한 홍보활동을통해 사건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새로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있어 대법원은 금주중 대법원판사회의를 열고 규칙개정여부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施行전보다 月평균 33%포기

18일 대법원에 의하면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이후 민사상고장 접수건수는 한달 평균 1백84건으로 특례법 시행이전인 80년의 한달평균 2백77건의 66.4%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제2심 판결전수도 한달평균 5백65건으로 80년이전의 10년동안 한달평균 4백9건보다 오히려 늘었던것을 감안하면 상고남발 경향은 괄목할만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고율 역시 80년의 48%에서 81년은 37.80%로 크게 둔화됐다.

이처럼 상고사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법원판사들이 격무에서 벗어나 중요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질수 있게 됐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상고이유를 대폭 제한하고 있을뿐아니라 법정이자율을 연5%에서 25%로 대폭 올렸고 승소자변호사비용의 일부를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등 상소남발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됐던것.

특히 특례법시행이전에는 채무자들이 법정이율이 연5%밖에 안되던것을 악용, 뻔히 패소할줄 알면서도 대법원까지 상고, 2~3년씩 소송을끌면서 갚을돈은 사채로 놓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는등 법정이자율이 사채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것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게 대법원의 분석이다.

被害보는 當事者 없어야

[illegible]

특례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과 헌법 해석의 부당 ▲명령·규칙·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의부당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상고요건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은 권리상고[illegible]해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내도록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는 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해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기각할수도 있다는데 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판결주문)은 정당하나 과정에서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을경우 하급심을 계몽하거나 대법원판례를 남긴다는 취지에서 상고허가신청을 허가해주되 본안판단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때문에 상고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한 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당사자는 본안판결로 기각이되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것.

실제로 지난해 상고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진 23건가운데 20건만 원심판결이 파기됐을뿐 3건은 원심판결이 그대[illegible]우 별도서면에 의해야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5조에는 「상고허가신청이 신청이유서에 권리상고사유를 기재해도 그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보이면 상고를허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로 모순된 규정을 모르는 당사자나[illegible]고한 사건수는 전체상고허가 신청건수 1천2백94건가운데 1백81건이나 됐다.

이에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허가 신청사유에 권리상고 사유를 써내도 되는데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잘 모르고 중복해서 상고해 피해를 보는것』이라고 밝혔다.

少年院서 大學간다

16개월 獨學 中·高·大入검정패스

金泉소년교도소 趙吉龍군

◇趙吉龍

초·중·고교의 12년과정을 소년교도소안에서 1년4개월만에 검정고시로 마친 재소자가 대입학력고사를 치른뒤 대학문을 두드리고있다.

경북 金泉소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趙吉龍군(19). 趙군은 국민학교도 마치지못한채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절도를 했다가 교도소에 수감, 교도소안에서 책과 씨름한 끝에 중입및 고입을 거쳐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한 의지의 소년이다.

大入학력考査도 百80점, 啓明大지원

"合格되면 가석방주선…登錄金이걱정"

國校중퇴후 아버지藥값없어 절도 오는12월滿期

노동품팔이로 어렵게 살아가는집안의 7남매중 3남인 趙군은 가정형편이어려워 大邱 新川국교5학년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소 제본공으로 취직했다.

아버지마저 결핵으로 병석에누워 趙군은 가정부일을하는 어머니와함께 집안의 대들보역할을했다.

이런 趙군이 아버지의약값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잘못생각, 남의집에 침입해 56만원을훔쳤다가 지난80년 4월 大邱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趙군은 교도소내에 설치된 초등반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 5개월만에 중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어 7개월만에 고입검정고시도 합격, 4개월만인 지난해 8월에는 대입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趙군은 지난해11월 대입 학력고사에 응시, 1백80점을 얻어 大邱啓明大에 지원했다.

趙군은 『대학에 합격하면 고학을 해서라도 졸업, 교사가되어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당장 등록금 마련조차 어려운 실정.

지금까지 趙군을 돌보아온 교도소 尹準漢교무과장(58)은 『죄를 뉘우치고 공부에 진력한 趙군이 용기를 잃지않고 살아갈수있도록 사회의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徐相堔소장(57)은 『만기일이 12월인 趙군이 대학에 합격하면 법무부에 건의해 가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金泉=聯】

「搜査異議조사반」설치운영

市道警局長室에, 申告하면 再搜査

徒步防犯 순찰도 강화키로

치안본부장실과 전국 각시·도 경찰국장실에 「수사이의(異議) 사건조사반」이 설치 운영되며 서울 부산 大邱 大田 光州 仁川등 6대 도시의 1천11개 파출소에 순찰시간 기록용시계가 지급돼 도보방범순찰이 강화된다.

도시(市)급이상 일선경찰서 수사과에 조사계를 신설, 전수사요원에게 형사소송법소양시험을 실시, 기초실력을 갖춘 요원들에게만수사를 맡기고 치안본부와 시·도경급 감사·감찰요원2백여명을 이달말까지 전원 교체한다.

치안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수사및 방범강화방안」을 마련, 통금해제이후 치안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수사이의사건조사반 설치 일선경찰서에서 취급한 형사사건처리가 편파수사등으로 억울하다고 판단될경우 신고하면 치안본부에서는 수사과장이, 시·도경에서는 수사과장이 직접맡아 요원들을 지휘, 재수사한다.

이의 사건을 재조사한결과 담당경찰관의 비위, 비리가드러나고 고의로 사건을 잘못처리했을경우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지난81년 한해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4백41건의 수사이의사건이 접수됐었다.

도보순찰 강화 오는3월말까지 전국6대 시의 1천11개 파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순찰시간기록용 시계 1개씩을 지급하고 시(市)급이상 파출소1천5백개소에도 올해안에 모두 지급, 경찰의 예방기능을 높이기위한 방범순찰을 독려한다.

또 통금해제에따른 방범강화책으로 현재의방범초소 2천3백개소를 2천9백개소로 6백개소를 더 늘린다.

수사요원선발 조사요원 10명이상인 전국60개경찰서 수사과에 조사계를 신설, 계급을 경감급으로 1계급을 올리고 조사요원을 간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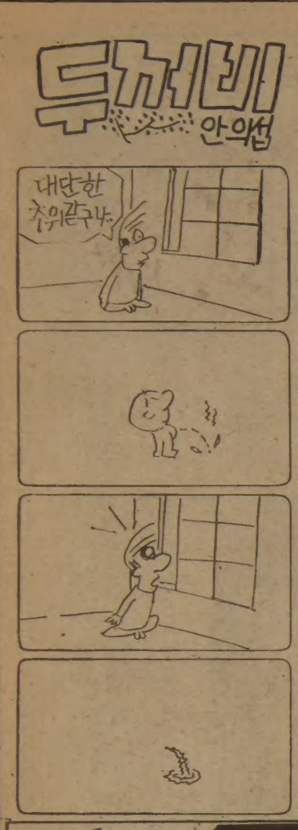
變態청첩행위 團束

保社部 음식점接待행위도

보사부는 18일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례에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기로하고 단속지침을 각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가 이날 각시도에 시달한 건전가정의례 실천지침은 최근가정의례 준칙 위반사례로▲결혼식장부근 음식점등에서의 접대행위▲요정·호텔음식점등에서의 호화판 회갑연▲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수백명을 초대한 호화판 접대행위▲알림 통보등 변칙적인방법의 청첩행위등을 지적했다.

보사부는 오는 4월~6월, 9~11월등 가정의례성수기에는 관계부처합동의 중앙특별지도단속반을 각시도에 파견키로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南西海岸 선박待避·승객등 발묶여

폭풍주의보로 애태워

紅島등엔 外國어선 대거몰려

【木浦·麗水=聯】 木浦·麗水등 남서해안 각항구에는18일상오 발효된 대설주의보와 폭풍주의보로 인해 이날정오부터 선박들의 입출항이 통제돼 해상교통이 모두두절됐다.

木浦항에는 1천여척에 달하는 각종선박들이 대피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2천여명의 승객·선원들의발이묶여있다.

특히 黑山島와 紅島지역의 각항구에는 동지나해역에서 고기잡이하던 외국선박80여척과 국내선박등 1백50여척이 대피하고있다.

麗水항에도 이날낮부터 5백여척의 선박들이 입출항을 못해 1천5백여명의 승객과 선원들이 애를 태우고있다.

한편 木浦시내 전기고등학교는 이날 등록금마감을 앞두고 해상교통두절로 등록금을 내지못한 섬지방학생들을 위해 날씨가 회복되는 즉시 등록금을 내도록 연기조치했다.

雪嶽山 입산統制令내려

嶺東폭설 山岳人등 待避소동

【東草=聯】 嶺東북부지방은 올들어 가장많은 눈이 내려 雪嶽山에는 입산통제령이 내리고 일부지방의 교통이 통제되었다.

지난16일상오4시47분께부터 이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낮12시이후 50m앞을볼수없는 심한 폭설로 변해 雪嶽山 大靑峰(해발 1708m)에 65㎝, 陽澤을 비롯한 1천m 고지대에 45㎝, 東草를 중심한 해안지대에 22.5㎝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 때문에 雪嶽山에는 입산통제령이 내려 동계산악훈련중이던 嶺南大등 24개팀 2백47명이 陽澤산장, 權金산장등에 대피했으며 東草와 巨津항에서는 고기잡이에 나섰던 2백5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했다.

또 이날밤7시부터 17일상오8시까지는 東草에서 雪嶽동, 襄陽·杆城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눈길에서는 7대의 자동차량이 전파되는 사고를 빚었다.

눈비同伴 강풍

濟州 수백척待避

【濟州=聯】 濟州지방에는 18일 새벽부터 눈비를 동반한 초속 14m의 바람이 몰아쳐 한때 해상교통이 모두 두절됐다.

또한 해발2백m 이상에는 15~30㎝의 눈이 내려 西歸浦와 濟州를 연결하는 제1, 2횡단도로가 교통이 두절됐으며 濟州도내 8개 항구에는 2백10척의 어선들이 대피하고 있으나 항공편은 정상운항중이다.

밀감農場 웅덩이

20代2명 溺死

【濟州=聯】 17일 하오5시 30분께 西歸浦市 龍興洞 서울농장(대표 金용곤)에서 밀감밭을 구경온 柳한씨(26·서울城東區 紫陽洞104)와 李익수씨(26·서울銅雀區 本洞917)가 농장에 설치된넓이 5평, 깊이3m의 시멘트콘크리트로 만든 웅덩이에빠져 숨졌다.

이날 사고는 농장내에 설치된 콘크리트웅덩이속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보기위해 柳씨가 물가에갔다가 발을헛디뎌 빠지자 친구를 구하기위해 李씨도 물에 뛰어들었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함께 변을 당했다.

◇無料스케이트場 人波

이상난동끝에 들이닥친 지각한파가 1주일째맹위를 떨치고 있다. 방학기간중 갈곳이없는 학생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않고 스케이트장을 찾고있다. 【사진은 汝矣島 샛강에 마련된 스케이트장】

카스테레오 專門절도단

3년간 1억원어치

30代등 4명拘束

서울西部경찰서는 18일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카·스테레오를 전문적으로 훔쳐온 李正勳(39·전과3범·서울西大門區 弘恩洞1131의1) 池壽福씨(32·경기安養市安養3洞719)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및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2일 하오4시께 서울龍山區 普光洞28 앞길에 세워둔 徐南洙씨(34·서울江南區 瑞草洞1112)의 서울4나7352호 마크Ⅵ승용차의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일제카·스테레오·세트와 비디오·카메라 1대등 3백여만원어치를 훔친것을 비롯, 지난78년11월부터 지금까지 카·스테레오 3백여대등 모두 1억여원어치를 훔쳐왔다.

外國觀光客 百25萬명 유치

5억5천만弗 外貨수익 目標

旅行業界 촉진회의

교통부는 올해 외국관광객 1백25만명을 유치해 5억5천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기로 목표를세우고 18일하오 교통부회의실에서 제1차 여행업계유치촉진회의를 가졌다.

국제관광공사와 여행업계 대표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교통부는 관광객유치를 위해 전천관광코스의 적극개발과 한·미수교1백주년을맞아 미주지역의 관광객들을 적극유치하며 특히 여행사의 단체관광객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여행사별 관광객유치최저인원및 외화획득액을 위한지침을 시달했다.

지난한해동안우리나라를방문한외국인관광객은80년에비해 12%가늘어난 1백9만3천명으로, 이들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는 전년에 비해 25%가늘어난 4억5천6백3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80년11월15일 노비자(사증면제)제도가 실시된 제주도에는 지난한해동안 80년보다 1백4%가 늘어난 4만1천8백25명의 외국관광객이 다녀갔다.

免許없이 운전연습

벼랑굴러 2명死傷

17일 상오11시20분께 서울[illegible]·서울冠岳區奉天7洞118의4)가 브레이크대신액셀러레이터를 잘못밟아 승용차가 8m아래 벼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자리서 숨지고 옆좌석에탔던 사촌동생 崔奎寅씨(27)가 부상을 입었다.

표주박

日비밀潛艦기지 베일벗긴다

釜山앞바다 노다지[illegible]

○…일제의 한국식민지 최전초기지로 건설하려했던 지하잠수함기지의 전모가 곧드러나게됐다. 부산南區 龍湖洞·牛岩洞·龍塘洞등 해안을따라 육지쪽으로 연결되는 해안선일원에서 2차대전당시 日本군이 건설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잠수함기지가 곧 그 베일을 벗게되는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이비밀잠수함기지의 내부지도와 그속에 금덩이가 숨겨져있다는 배치도를 입수, 탐사작업을벌여온 東亞대학교 지질학교수 具緣宅씨(58·釜山鎭區開琴洞16통3반)는 최근잠수함기지의 수중통로를 발견한 鄭燦永씨(38·부산中區忠武洞2가18)와 함께 그신빙성을 확인하고 지난13일 관계당국에 발굴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그가능성이 짙어진것이다. 【釜山=聯】

朱鈺卿여사 別世

義菴 孫秉熙선생 미망인

義菴 孫秉熙선생의 미망인 守堂 朱鈺卿여사 (사진)가 17일상오6시40분 서울道峰區牛耳洞254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8세.

朱여사는 서울태생으로18살때 3·1독립운동 민족대표의 한분인 義菴선생을 만나 10여년간 독립운동을 뒷바라지 했었다.

朱여사는 1921년 義菴선생이 3년동안 옥고를치른뒤 병사하자 일본에 건너가 東京櫻町女塾 영문과를 졸업하고 귀국, 한국최초의 부인회인 천도교부인회를 결성해 민족계몽운동을 펴왔다.

장례식은 오는21일상오11시 서울鍾路區慶雲洞 천도교중앙총부교당앞에서 천도교회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서울牛耳洞 義菴선생묘역. 빈소는 서울牛耳洞 천도교별관에 마련됐다. ☎(99)2391

全大統領 弔花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18일하오 孫秉熙선생미망인 故朱鈺卿여사의 빈소에 의전비서관을 보내 弔花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loor / Bathurst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英美圈 휩쓰는 5人의 베스트·셀러作家

讀者확보 秘訣은「勸善懲惡」

로빈슨-카틀랜드-월레스-르아무르-데일리順
2억부~8천만부팔려 돈방석에 앉아
文學性보다「이야기」로 성공한 作品

해외文学

◇어빙·월레스

◇재니트·데일리

◇해럴드·로빈슨

◇바버러·카틀랜드여사

현재 영어사용권지역에서 현존하는 작가들 가운데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흔히들「代父」를 쓴 마리오·푸조(10년간 1천8백만부 판매)나「남태평양」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임즈·미치너정도가 반드시 포함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英·美양국의 문학평론가나 출판관계전문가들을 조사도 최고2억부에서부터 최저8천만부까지의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작가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아맞히지를 못했다. 이들 작가들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낯선편으로 번역서적도 거의 없는것이 그 특징이다.

베스트5의 넘버원은 해럴드·로빈슨(68).「낯선자를 사랑하지 말라」「꿈꾸는자가 먼저 죽는다」등으로 무려 2억부를 팔아 그야말로 돈방석에 오른 사나이다.

2위는「자존심과 불짱한공주」「왕자와 발바리개」로 1억5천만부의 판매부수를 올린 영국의 할머니작가 바버러·카틀랜드여사(77).

3위는「말씀」「행상인의 보고서」로 1억3천만부를 기록한 어빙·월레스(64), 4위는「무스탕·맨」「용사의 길」로 1억1천만부를 판 70대초반의 루이·르아무르, 5위는「바람의 숨결」「밤길」로 8천만부를 마크한 재니트·데일리여사(36)이다.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주인공들이면서도 타임이나 뉴스위크, NYT紙등 지면에 이들의 작품이나 이들이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우선 이들의 작품이 그잘란안에서만 독자를 갖고있는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을 점검, 종합하는 자료로이용되는 서점판매고에는 시골 트럭운전기사나 휴게소, 간이매점에서 플레이보이등 오락잡지와함께 팔리는 이들의작품들이 정확하게 합산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15편의 소설로 2억부를 팔아 작품한편당 7백50만달러씩 도합 1억1천2백50만달러(韓貨7백87억원)를 번것으로 알려진 해럴드·로빈슨은 주로 名士들의 性도착증을 다루고 있다. 거대한 비즈니스에 얽힌 음모,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산업정보, 이속에서 목적한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인물들이「여섯사람이 자도될만한 큰침대」에서 벌이는 性행위등이 함께어우러지고 있는것이다.

실제로 로빈슨의 소설「꿈꾸는자가먼저죽는다」를 읽은 독자들은 플레이보이왕국의 휴·헤프너를 주인공으로 연상한정도다.

바버러·카틀랜드여사는 옛날에있었던 역사적사건을 소재로 남녀의 사랑을 엮어나가는 역사적로맨스가 전문분야. 그의 소설은 한편이 대개 5~6만 단어로 보급판 1백70페이지정도의 가볍게 읽을수있는 부피. 요즘엔 하루에 80점의 비타민을섭취, 건강관리를 해가며 원색률으로이스를 둘고다니면서 喜를과시하고있다.

3위의 어빙·월레스는 최근작「제2의 숙녀」는 소련의 비밀정함이 美대통령의 부인을 바꿔놓으려하는 음모가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또한「제2의나」「비둘기작전」「R문서R」등도 국가안전의 위협, 국제간의 음모를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들 세사람보다 더욱더 알려지지않은 4위의 작가 루이·르아무르는 서부소설로 致富한 케이스. 황야의 서부를 달리면서 초원의 아름다움을 읊고, 악당이 나타나면 용감히 무찌르는 주인공을 그린 르아무르는 서부소설을 무려 78권이나 썼다.

르아무르는 미국 北다코타州 제임즈타운에서 태어나 15세때 소설속의 주인공처럼 집을떠나 서부로향했다. 그는 과일따는 일에서부터 시작, 벌채, 목수, 코끼리 조련사, 부두노동자등을 거친다음 이같은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시작했다.

5위의 재니트·데일리는 전직여비서 출신.「바람의 숨결」「밤길」등 그녀의 작품은 현대서부소설과 연애소설의요소를한친것이다.

이들 다섯작가는 모두저마다 하나씩 특색있는 내용을 내세우고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이들모두가「이야기꾼」이라는 점이다.

문학평론가들은 이들의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다거나 역사의식이 투철한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독자층을 형성하고있는데 대해 그이유를이렇게설명한다.

우선 이들의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선인과 악인이 등장, 勸善懲惡의 결론을 맺어주고있다. 서부의 초원에서든 고층빌딩이 들어선 도시에서든 복잡하고 교묘한 사건을 거치면서도 결국 좋은사람은 보상을받고 악한은 벌을 받는다는 줄거리를 담고있다.

이들의 소설은 단순한勸善懲惡의 내용을 시간파방법, 소재가 다른 줄거리로 엮어나간것뿐인데 독자들은 책뚜껑을 덮으면서 크게 만족하게 되며 새책이 다시나오면 그만큼값을 얻기위해 주저없이 사게 된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많은 독자를을 가진 작가들의 독자확보비결이다. 【外紙에서】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사장님, 정말 봉급을 올려 주셔야 되겠읍니다"
"물가는 올라가죠! 식료품, 옷값··· 모든게 올라가기만 한다구요!"
"모두가 아니네, 범스테드" "네, 그래요? 그렇다면, 올라가지 않는게 뭔지 하나만 대보시죠!"
"자네봉급 있잖아"

◇酷寒도 잊고··· 江陵경포호수에 몰려든 1천2백여명의 낚시꾼들이 얼음을 뚫고 고기를 낚기에 여념이없다.

외국의 名言

赤字財政습관 계속되면 나라가 궁핍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882~1945〉

美國의政治家, 뉴욕태생으로 하버드, 콜럼비아大學졸업후 辯護士。上院議員으로 1932년 民主黨에서 大統領당선。1929년 공황뒤의 경제불황속에서 뉴딜政策추진。2차大戰중大統領 4選。

一國의 政府는 家庭의 경우처럼 한해만이라면 收入보다 약간 여분의 支出을 할수가 있다。그러나 다 아는 바와같이 이 습관을 계속하면 궁핍해져 버릴것이다。

× × × ×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32대대통령으로 취임한 1932년代의 美國은 大恐慌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農民은 과잉생산품의 산더미속에서 땅이꺼져라 한숨만쉴뿐, 그리고 全美각지에서 자살자가 속출했다。그는 이 世界的不況과 싸울짐을 책임진 大統領이었다。

恐慌을 없애기 위해선 動脈硬化를 가져온 經濟界에 새로운 피를 주입해야 한다。國家管理에의한 事業의 再開와, 國庫補助 아래서의 産業振興같은 소위 뉴딜政策이 내세워져 그의 브레인에 의해 조직된 노동부대가 침체된 工場과 상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經濟界라고하는 말라붙은강에 國庫負擔이란 물을 집어넣는것, 이것이 뉴딜政策이다。

고착된 車輪에 윤활유를 집어넣어 돌리는 것같은 이치다。

이의 成功은 그의 뉴딜政策을 추진할 브레인들에게 自信을 갖다주었다。

1936년 대통령재선시엔 더욱많은 국고부담에의한 사업계획을 밀고가려했다。

루스벨트는 미소지으며 이案을 거절한다。

그때 한말이 引用의 말이었다고。國家에 의한 赤字각오의 復興의 시대는 끝났다는뜻을 담고 그는 말했을 것이다。車輪은 굴렀다。지금부터는 축적의 때라는 뜻일것이다。

가정에서도 같은일로 가계부의 赤字를 1년쯤은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계속하면 저금도 동이나고 家具衣服에 이르기까지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美政界名門에 태어난 그는 美國史上 유례없는 4選의 大統領이 됐으나 2차大戰이 끝나기전 사망했다。

大學졸업후 韓國에

나의 이력서 元一漢 ㉟

〈題字·元一漢〉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 돌아가는 여객선에는 나외에도 일본 중국에 파송돼있는 선교사의 자녀들도 끼어 있었다.

일본을 떠난 태평양횡단 여객선은 대개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직행하지 못하고 거센 파도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쪽으로 항해하는게 통례다.

배는 일단 캐나다의 밴쿠버에 기항했다가 시애틀로 향하게되어있었다。시애틀에 도착하면 미국세관원이 승객들의 짐을 검사한다.

당시 미국은 禁酒시대였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밴쿠버에서 마시고 남은술을 병째 들고오는 일이 없지않았다.

캐나다는 모피생산으로 유명한나라다. 내가 船上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승객이 밴쿠버에서 모피한장을 사서 짐속 깊숙이 넣고 짐 맨위엔 술병을 얹어가지고 들어왔다.

시애틀 세관원은 짐위에있는 술병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져 다른술병이 또 있지 않나 하고 술병찾는데만 정신이 팔려 세금을 물어야하는 모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한다。

나는 고등학교2년 대학4년등 6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그중 여름방학을 이용, 한국에 다녀갔고 미국생활 3년만인 1936년 그로부터 다시 3년후인 1939년 여름 완전히 귀국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한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했다。그때 나는 선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장로교선교사로 한국에서 선교를 했고 아버지도 그뒤를 따랐으니 손자인 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하느냐와 선교사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두었다고 해서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망설임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확고한 결심을 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왔다。아홉이나 한국에살고있는 부모와 동생들 곁으로돌아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어버렸다。

미국에서 돌아올때 북장로교선교부에 찾아가 공식적으로 선교사임명을 받았으면 파송선교사가 되었겠지만 나는 현지에서 선교사의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자위선교사가 된것이다。

將來문제 決心못해 한때 고민

◇여름방학을 이용 한국에돌아와 九味浦에서의 한때。左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尹씨라고만 기억한다。그리고筆者。

결국 自願宣教師로···延禧캠퍼스서 英語가르쳐

나는 할아버지(元杜尤목사)의동상이 서있고 아버지(元漢慶박사)가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延禧캠퍼스의 영어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와보니 일제의 식민정책이 아주 노골화되어있었다。교과내용으로「修身」과「일본어」가 강화되고 한국어를 없애기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각급학교에서는 한국어사용이 금지되고 일본학이 강요됐지만 延禧전문학교만은 문과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다。

1·2학년은 매주 3시간, 3·4학년은 매주 2시간씩 한국어강의를 받도록해 일본의 소위 황국신민교육에 정면으로 도전해 보자는 반항이었다。

한국어강좌는 이름해(40년)봄학기부터 일본학이라는 과목으로바뀌고 말았다。

따라 일본말로만 강의하도록 강요함에 의하여 시간에는 몇사람의 학생들이 자기네 말로 다했다。

영어교육에도 비상신호가 내려졌다。소위 일제의 국책에 맞지않는 서양서수입이 제한됐고 中·日전쟁후 일본을 나쁘게말한 버트런드·러셀과「자유론」의 저자 존·스튜어트·밀의 작품도 가르칠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는 선교사가 되기위해 본국 미국서 귀국한 그해9월부터 석달간 일본에 건너가 현지교육을 받아야했다。

내가 일본에서 수업한 곳은 YMCA였다。학교는 일본문화학교로 주로 일본과 한국에 파송돼있는 선교사들이 어학훈련을 받았다。

美, 越南戰종군자중 머리負傷者만 조사

『월남전에서 머리에 부상한 재향군인들은 모두 신고를 바랍니다』

미국의 적십자사와 재향군인회는 지난1월초부터 이같은 이색적인 공고를 각 신문지상에 냈다。적십자사등 이들단체들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머리부상을 입었을 경우 후유증이나 이로인한 간질발작등을 다각적으로 조사, 의학연구에 도움을주는외에 재향군인회의 정책과 연방법개정의 자료로 제공키위한것이다。

적십자사등은 우선 국내4천여명의 재향군인들과 그가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그첫단계로 이들이 모두 워싱턴의 월터리드·메디컬센터에서 종합신체검사를 받도록했다。【LA支社】

컨베이어 철수하다 탄무너져 鑛夫壓死

【太白=聯】16일 하오1시30분쯤 강원도 太白市鐵岩2洞 강원산업 본갱 2·1㎞지점 막장에서 컨베이어 철수작업을 하던 선산부 李東玉씨(42·太白市鐵岩2洞18)가 천장에서 무너져내린 2톤가량의 탄더미에 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李씨는 이날 동료 19명과함께 컨베이어철수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쏟아진 탄더미에 깔려 변을당했다。

流星의 賦 〈286〉

李炳注作 李友範畫

風雅와 策謀 ⑰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와 같은 곳에서 야영(夜營)을 하면서 보초(步哨)를 세우지 않았을뿐 아니라 아무런 경비태세도 하지 않고 있다는점이다。대천가(大天家)는

『이런 수월한 전투가 있을 수 없다。한놈 빠짐 없이 다 죽여라!』

명령과 함께 밤 사이 9천의 병력을 숲속에 잠복시켜 포위망을 단단히 해 놓은 시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 히데쓰구군(秀次軍)은 식사준비를 했다。바로그 무렵이었다。가강군(家康軍)이 전력을 다하여 공격을 가했다。그런 이미 전투랄수도 없었다。도살이었다。대부분의 병사들이 식기를 버리고 말을 찾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기가 겨우였다。

히데쓰구는 그저 당황하여 말 있는 곳으로 뛰어가다가 숲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덕천방(德川方)을 보고는 발길을 돌려 달렸다。그 사이에 그가 내린 지시는

『요시마사를 부르라。요시마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요시마사(吉政)란 선봉대장 다나까요시마사이다。이 사나이만은 혼란중에서도 침착을 잃지않고 방전(防戰)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무슨 일인가고 히데쓰구에게로 와 보았더니

『이께다에게 사람을 보내라。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일러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요시마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령(傳令)을 맡은 병졸이 대장에게 있는데, 제일선의 대장을 전투도중에 불러 전령으로 쓰려는것은 언어도단한 일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령 자체가 되어먹지 않았다。후군(後軍)이 당한 혼란은 후군의 힘으로써 감당해야 한다。그런데 수십리 전방에 있는 대대(大隊)를 돌려세운다고해도 이 상황으로선 적의 밥이 될뿐 아무런 보람도 없을 것이었다。

이 두가지 이유로 다나까요시마사는 히데쓰구의 명령을 거절했다。그러자 히데쓰구는 대장의 명령을 듣지않으면 죽인다고 미친듯 외쳤다。하는 수 없이 요시마사는 단기(單騎)로 한시간 가량을 달려 호리히데마사(堀秀政)의 진중으로 가서 후군의 붕괴를 보고했다。

호리는

『요시마사, 당신은 심부름하는 전령이 아니고 일방의 군을 맡은 지휘자가 아니냐。그리고 보니 겁에 질려 혼자 도망해 온 것이 아니냐』

고 대중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요시마사는

『감이 장래를 도모할 대장이 아니라』

고 히데쓰구를 평가하고 전선을 이탈하여 낭인(浪人)이 되어버렸다。

요시마사가 전령으로 간후 히데쓰구는 입고있던 갑옷을 쓰고있는 투구등을 다 버리고 거의 알몸으로 되어 도망쳤다。그런데 그 앞을 창(槍)의 명수(名手) 가니사이조오(可兒才藏)가 말을 타고 유연히 도망치고 있었다。수길은 히데쓰구를 훈련시킬 목적도 있고해서 가니와 같은 명수들을 히데쓰구군에 많이 배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조오, 사이조오!』

하고 히데쓰구는 사이조오에게 매달려

『말을 빌려달라』

고 했다。사이조오는 히데쓰구를 힐끔 본 후

『이것은 비올 때의 우산이오』

하고 달려가버렸다。전쟁의 명수인 그의 눈으로 보아 히데쓰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장이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

朴婉緒作 金光培畫

한 옛날에 ⑱

실상 누구의 일곱살이나 다 그랬듯이 수지의일곱살적의 일도 그렇게 또박하게 생각나는건 아니었다。동생의 손을 놓쳤는지 일부러 놓았는지는 갈수록 아리송했다。

옛에 아무리 눈 밝은 목격자가 있었다해도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난리통의 혼잡속에서 동생의 손을 놓았다고 아니라 놓쳤다고 생각할수도 얼마든지 있었다。그때의 상황으로 보나 그때의 연령으로 보나 놓은 것보다는 놓친 게 훨씬 자연스러웠다。

실지로 그렇게해서 생긴 이산가족들은 의외로 그 수효가 많았고 서로 찾아 헤매는 애타는 목소리가 난리가 끝나고도 몇년동안이나 이나라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고 있었다。어떤 신문은 이산가족찾아주기를 신문의 명예를 건 대사업으로 삼고, 그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와, 기다리다 지친얼굴과 서로를 확인할수 있을만한 단서를 한데 모아 넓은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하기도 했다。

매주 우표딱지보다도 더 작은 가족찾는 사진이 신문의 두면을 총총히 채워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무진장으로 나타났고 그기사를통해 가족을 찾은 행운아는 어쩌다가 있었다。그것만 보아도 난리통엔 식구를 잃었다는 불행도 얼마든지 다반사일수 있다는 걸 알수있었다。

대편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참경위에 벌렸만 만발해도 자신을 미아로 만드는 머저리가 돼가는 판국이었다。전쟁은 언제 있었더냐싶은 옛날 얘기였다。

수지가 오목이 손목을 놓쳤는지 놓았는지 그 한계는 사람도 처음부터 없었다。모호했고 그걸 알고싶어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없었다。수지는 자기 자신만 속여먹을 수 있으면 속편할수있었다。

그러나 수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부득이 오목이를 일부러 놓았는지 놓쳤는지 북새통에 놓친게 사실이더라도 엄마의 참사를 보고 천벌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은 그녀의 의식에 찍힌 죽도록 지울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 나이에 그토록 말똥말똥한 의식으로 그런 참사를 직시하고 천벌로서 순종할수 있었다면, 천벌받을 짓을 저질렀음을 의심할여지가 없었다。

고로 수지는 오목이를 놓친게 아니라 놓은 거였고, 어린 마음에 선악의 의식없이 놓은게 아니라 충분한 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짓이었다。그건 비록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변명할 여지없이 확실한 죄악이었다。수지가 자신의 일곱살을 꼭꼭 움켜쥐고 그누구에게도 펴보이지않으려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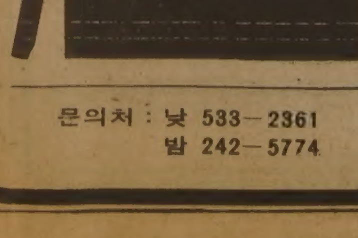
—옛날 옛적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조(趙)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위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도성을 포위했다。도성이 포위된지 일년 도성사람들은 굶주릴대로 굶주려 아귀가 돼에 마침내 서로 자식을 바꾸어가며 잡아서 먹이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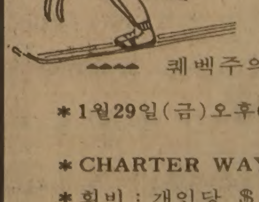
역사시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역사선생님은 이렇게 피기한 옛날얘기를 곁들였다。

여학생들이 까악하고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몸서리를 치고, 어떤 아이는 혐오감을 못이겨 헛구역질을 다했다。

그러나 수지는 그런 얘기가 조금도 신기하거나 재미있지 않았다。아이들의 놀라움이 유치한 허풍으로밖에 안보였다。그녀 역시 옛날에 한솥의 밥을 먹어내기가 싫어서, 한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게 아까와서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다버린 적이 있기때문이었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착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 "세넹"으로
＊1월29일(금)오후6시정각출발(브랜돈 스포츠사 앞)하여 31일(일)귀환(2박3일)
＊CHARTER WAY 버스여행 7시간
＊회비 : 개인당 $180(개인별로가면 $280 소요), 11세미만어린이 $50
＊LIFT FREE, 강습료 FREE 이외에 스키대여료는 별도(하루$10정도)
＊일류 콘도미늄으로 부엌시설 완비(단 음식은 각자 지참해야함. 쌀, 밥솥 기타)
＊방은 3BED ROOM UNIT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자중 회비 미납자는 접수가 취소될수 있아오니 조속히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한국일보 사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17일자
주간女性
도버 橫斷 꼭 신기록 세우겠다 —趙五連 선수의 스위트홈 新春특별 탐방
悲運의 가수 河秀英의 생애
행정고시 合格한 張玉珠양
元美京의 口舌數와 속事情
稀·暴女列傳 夏姬편
리즈·테일러의 스캔들 傳記
楊姬銀양의 歌手 데뷔 秘話
女子 농구界 트로이카 등장
새해 文壇 뒤흔든 新春文藝 우먼 파워 詳報
맞선 1백번만에 仙女 같은 愛人 얻은 高榮秀
〈탤런트 張美姬〉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間 賃貸주택業 중점支援

經濟對策보완 금융·稅制혜택줘 産業化

住宅관련 活性化案

①2住宅 3년貰주면 免稅
②주택賃貸소득 分離과세
③登錄稅의 2중課稅 철폐
④아파트 분양가課標바꿔

宅地공급 조건등 住公대우
政府·地自團體참여도 誘導

정부는 1·14조치중 주택관련대책이 미흡했던것으로보고 ▲임대주택산업의 중점육성을위한 구체적인 稅制및 金融지원방안 ▲양도소득세제의 완화 ▲취득세및 등록세 이중과세철폐등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16일 정부고위당국자는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위해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관련法규정을 고칠계획이며 특히 민간주택임대업을산업화하여 토지공급및 자금지원을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건으로 해주는등다각적인 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

그는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주택을 여러채 소유할경우 투기가 일어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될수있으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대신 일정기간동안 轉賣를 금지시키면 별문제가 없을것이라고말했다.

또 당초 건설부가 마련, 경제장관협의회에 건의했던 주택관련경기활성화대책試案중 ①주택임대업을 육성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이라도 2년이상 임대했으면 양도세의 50%, 3년이상 임대했으면 1백%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②현재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고있으나 이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등도 재검토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③주택건설업자의 보존등기와 최초입주자의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중복과세되는것이므로 이를 철폐하는방안 ④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기준으로 과세하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내무부 시가표준액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등도 아울러 검토될것이라고 밝혔다.

國展폐지 新人公募展으로

명칭 美術大展 旣成은 초대展…審査과정 공개

李文公、사진·건축部門제외 賞金制 없애고 작품買入만

지난30여년간 개최돼온 대한민국 미술전람회(國展)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대신신인 공모전 형태의「대한민국미술大展」으로 개편、실시된다.

李光杓문화공보부장관은 16일 國展제도개혁안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문예진흥원이 주관하게될「대한민국미술大展」외에 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현대미술초대전」을별도로 신설、종래의 추천·초대작가등을 망라하는 기성작가 전람회를 열도록 하겠다고말했다.

李장관은 또 새로 실시될 美術大展에서는 사진과 건축부문을 제외、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등 5개부문만을 두며 회화·조각에 있어서의 구상과 비구상의 분리도 폐지된다고 밝히고 사진과 건축은 해당단체들을 통한 별도의 전문적인 전시회를 열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李光杓문공장관

李장관이 밝힌 國展제도개혁안은 ▲신인공모전과 기성작가전으로의 二元化 ▲추천·초대작가제도의 폐지 ▲사진·건축부문의 제외 ▲구상·비구상의 통합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밖에도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선정과 심사과정을 공개하며、시상제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시상과작품매입으로 二元化 돼있던것을 작품買入만으로 一元化、별도의 상금을 없애도록했다.

또한 美術大展과 招待展의 개최계획은 주관기관이 개최 3개월전에 공고하도록 못박았으며 시상종목을 사실상없애 입선작과 특선작만을 가리도록했다.

李장관은『미술계가 그동안 배양해온 창작역량과 정부의 새문화창달시책에 비추어볼때 새로운차원의 창조적발전이 필요한시점에 이르렀다』고 國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제도에대한 미술계와 국민의 호응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南悳祐 諮問委員에 全대통령이 위촉장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南悳祐前국무총리를 國政諮問위원으로 위촉、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委囑狀을 주었다. (사진)

이로써 國政諮問위원은 27명(의장제외)으로 늘어났다. 이날 위촉장을 주는자리에는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한국、12개事業 제시

5次계획중 60억弗규모 日決斷위해

韓日예비회담

韓日外相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정부측은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중 日側의 對韓경협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12개 프로젝트를 日側에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 16일『지난해 8월 外相회담에서 日側에 10개의 프로젝트를 이미 제시한바 있으나 당시는 5개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88년올림픽 유치도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밝히고『이번에 제시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총규모는 60억달러』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이번프로젝트제시는 종래 일본측이 주장하던 프로젝트별 심사를 위해 제시된것이 아니고 다만 日側의 先총액규모결정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범위내의것』이라고 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우찌(木内昭胤)日외무성 아시아局長 일행은 2泊3日간의 訪韓일정을 마치고 16일상오10시 JAL便으로 離韓했다. 기우찌局長일행은 離韓에 앞서 이날아침 盧信永외무장관을 美南洞공관으로 예방、조찬을 함께 했다.

民韓創黨 1周 柳총재기념사

"民主化 장애殘滓 제거

政治宿題해결 經濟에도 도움"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6일『우리는 民主回復이라는 큰 理念아래 민주질서에 장애되는 모든 殘滓를 제거하고 참된 민주제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柳총재는 이날상오10시 汝矣島중앙당사10층 회의실에서 소속의원、당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創黨1주년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이같은 바탕이 마련되지않고는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룩될수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것은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일뿐아니라 오늘의 經濟難局을 與野나 계층의 구별없이 해결해 나가는데도 큰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우리야당은 결코 오늘일이 成事되지 않았다해서 조급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있을 수만은 없다』고 전제하고『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빠른시일안에 어떻게든지 실현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우리들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또『우리는 舊體制의 非민주적 殘滓를 쓸어내지 않고는 참다운 민주체제는 구축될수 없으며 그것은 바로 與野의 균형있는 경쟁을 보장할수 있도록 국회기능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면서『국회법과 언론기본법의 개정、정치범의석방과 정치규제자의 解禁등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이를 관철하는데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野黨 機能회복다짐 첫돌

16일 상오 民韓黨創黨1주년기념식에서 柳致松民韓黨총재는 민주주의의 顯現과 野黨의 機能회복을 역설했다.

美·캐나다등과 日、海上훈련

【東京15日AP=聯合】일본해상자위대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과 오는3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하와이근해에서 실시되는 82년도「림·팩」합동해군기동훈련에 약 1천명의 해상자위대병력과 함께 미사일구축함2척、헬리콥터航母1척、P2J對潛哨戒機8대등을 파견한다고 일본방위청 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림·팩」해군기동훈련은 美國·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참가한가운데 지난7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돼왔는데 일본은 지난80년에 처음 참여했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번 합동기동훈련에 파견할 2척의 미사일 구축함들은 모두 3천8백50톤급으로 고성능 신정보장치를 갖춘 5천2백톤급의 헬리콥터 항모와함께 작전에 참여할것이라고 이소식통들은 밝혔다.

韓日經協 진전

스즈끼日首相회견

【大阪16日共同=聯合】스즈끼·젠꼬 일본수상은 16일 한국의 60억달러經協요청에 관한 韓日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韓日外相회담에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예비회담에 관해 언급하면서『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그러한 의미에서 60억달러經協에 관한 양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自民黨의 모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오오사까에 온 스즈끼수상은 17일 서울의 예비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기우찌 외무성아시아국장을 불러 회담결과에 관해 브리핑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日의 對韓經協긴요

美국무성논평 韓半島안정도움

【워싱턴15日=聯合】레이건行政부는 15일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즈·메나드국무성대변인은 이날 60억달러 經協에 관한 韓日경제협력예비회담에 논평, 美행정부는 일본의 對韓경제협력이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도움이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나드대변인은 또 일본방위비 확대가 역내안보에 기여할것으로 미행정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나드대변인의 이러한 논평은 일본을 포함한 전극동지역의 안보유지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미정부의 종래입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日油槽船기습받아 한국船員 1명重傷

比近海 怪飛機에 日本외무성 경악

【東京16日=宋孝彬특파원】일본大井해운소속 유조선 北해그號(5천3백7톤)가 15일하오4시50분 필리핀 민다나오 근해(북위6도59분 동경1백26도50분)에서 정체불명의 비행기로부터 공격을 받아 선체가 파손되고 한국선원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유조선이 비행기로부터 직접 무력공격을 받은데 대해 크게 충격을 받고 외무성을 통해 필리핀정부와 협조、이비행기의 소속을 찾고있으나 16일현재아직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이사고로 한국선원 成哲煥씨(20)가 어깨 1군데、다리 3군데에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배안에서 치료중이라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밝혔다.

이 유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메타놀 3천4백톤을 싣고 釜山으로 항해하던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배는 한국선원15명과 일본선원 7명이 타고 1월20일 釜山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한편 공격을 받은 해그號는 선체일부가 파손되었을뿐 항해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釜山으로 계속 항해중인것으로 알려졌다.

安保經協 요구안해

日紙크게報道

【東京16日=宋孝彬특파원】요미우리(讀賣)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5大신문은 서울에서 열린 韓日高位실무자회담에서 한국측이 제5차경제개발계획에 관련, 일본측에 요청한 경제협력내용에 대해 事業別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2월 東京에서 제2차 高位실무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것은 韓日경제협력에 관한 교섭이 本軌道에 들어 섰음을 의미한다고 16일 1面톱또는 中間톱으로 크게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面중간톱으로 제1차 실무자회담의 결과를 보도하고 60억달러經協에 관련된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上下수도와 철도건설등 사회기반조성에 중점을두고있다고 지적, 安保에 관련된 經協은 요청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경제협력을 에워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교섭이 서울에서 열린 양국간 고위실무자회담으로 일단 궤도에 올랐으며 제2차 고위실무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韓日외상회담이 3~4월경에 열릴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社會漫評

「新裝개업」키로…

地平線

롯데·호텔은 서울都心 스카이·라인의 한頂點이다. 都心중의 都心땅 7천1백평에 들어선 지하3층·지상37층의 호텔본관 건물, 그리고 여기 달린 건평 1만평의 쇼핑·센터와 지하상가는 국내최고층·최대규모·최신의 시설을 자랑한다. 그러니 여기 화재사고가 났다는 것은 서울의 얼굴에 불똥이 튄 것이나 다름없다.

▼불은 부속건물인 실내 수영장의 개수공사중에 일어났으나, 불길이 빨리잡혀 인명피해도 없었다. 호텔측의 대비가 침착하여, 몇천명에 이르는 숙박객과 이용객들이, 마침 이날 실시중이던 民防衛훈련처럼, 질서있게 대피할수가 있었다는것이다. 다행한일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런 시설에 화재위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는게 섬짓하다. 더구나 최신을 자랑하는 이 호텔에 소방시설의 미비로 개선명령을 받은 前歷이 있다니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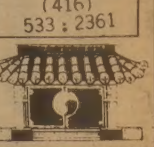
▼그 보다 더 딱했던 것은 불이 날때부터 일어난 都心의 교통체증이다. 그餘波가 鍾路─光化門, 安國洞─南大門路, 서울驛─중앙청등 간선에 두루미쳤으니 종심하다. 호텔주변에 지하철 공사장이 있었고, 補償문제로 블록담을친 자투리 땅이 있었다는 악조건이 겹치기는 했으나, 노상주차한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웠다는것도 문제다.

▼이런 판국에 불이번져 중상자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텔리비전화면에는 즐비하게 대기한 구급차가 보이기도했지만, 그차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어 보이지를 않던것이다. 꼭 이번같은 혼잡스런 사고가 아니라도, 교통체증은 人命을 앗아갈수가 있음을 생각하게된다. 흔히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송, 또는 심장마비 환자의 수송등을 생각하면 실감할수 있는 사태다.

▼「드링커의 生存曲線」이란 것을 보면, 호흡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경우, 3분이내에 처치하면 75%가 살아나지만, 5분이 지나면 그확률은 25%로 떨어진다. 그래서 醫療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겠으나, 대규모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교통대책의 마련도 아쉽다. 여기서 명심할것은, 지상·지하의 여러시설이 집중된 都心은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安全취약지대란 점이다. 安保的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都心의 취약성을 새삼 절감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숯불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교회안내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에도 귀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비웁니다 전토론토 한인교회(TORONTO METRO UNITED CHURCH)교인이었던 저희들은 임시로 KINGSTON UNITED CHURCH를 빌려서 계속하여 예배드리고 있음을 교포세위에게 알려 드리오며 전과 같이 저희들을 아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앙망 하나이다.

교 회 명 : 한인교회(HAN IN UNITED CHURCH)
장 소 : 975 KINGSTON RD. (빅토리아 파크에서 2 BLOCK 서쪽))
예배시간 : 주일오후 1시30분

토론토동우회공고

제 5 대회장선거

본회는 제5대 회장선거를 회칙 제5장 제24조에 의거 공고함.

1. 등록기간 : 1982년2월13일오후5시 시까지
2. 등록장소 : 3601 Lawrence Ave. E. Scar. M1G 1P5 439-3312
3. 등록자격 : 정회원으로 회칙25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4. 등록서류 : 회칙제 24조및 본문단서에 의함.

〈참고〉: 선거에관한 문의는 선관위
이영만 : 431-5958 김용기 : 266-6358
송재서 : 439-3312

1982년1월

동우회선거관리위원회

제 5 차 정기총회

본회는 제5차(82년도)정기총회를 회칙제3장9 조 1항, 3항에 의거 공고함

1. 일시 : 82년2월20일 하오7시
2. 장소 : 한인회관강당(20 Mobile Dr.)
3. 안건 : ①81년도 사업보고
②81년도 감사보고
③81년도 결산보고
④제5대회장선거

1982년1월

토론토 동우회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 : 30~11 : 00 P.M
금 11 : 30~2 : 00 A.M
토 1 : 00P.M~2 : 00A.M
일 1 : 00P.M~10 : 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蘇型공산주의 反對"
伊共產黨선언…波계엄宣布도 非難

【로마15日AP=聯合】 이탈리아 제2의 정당인 공산당은 15일 폴란드계엄령선포와 소련형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선언했다.

이탈리아공산당 제1서기 엔리코·베를링게르는 이날 3일간에 걸친 이탈리아공산당의 폴란드사태에 대한 토론을 끝내면서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열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소련과 동구유럽의 정치·경제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를 원치않고있다고말했다.

소련으로부터 독자적노선을 추구하고있는 유럽공산주의운동의 기수인 베를링게르는 폴란드사태가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으로 시작된 진보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民衆들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고 군사적방법에 의한 해결을 호소하는것은 사회주의이념에 결정타를 가한것이라고 폴란드계엄령선포를 비난했다.

타스通信東京支局 日極右派폭파기도
反蘇캠페인강화

【東京15日AP=聯合】 소련관영 타스통신 東京지국 주차장에서 14일밤 극우파가 던진것으로보이는 사제폭탄이 폭발했으나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일본경찰이 15일밝혔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폭발이 14일밤 9시30분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이번사고가 반소 캠페인을 강화하고있는 극우파들의 소행인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일본주재 소련기관에서 폭탄폭발사건이 발생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日、對蘇제재 檢討
對波압력에 抗議

【東京15日AP=聯合】 일본정부는 소련의 對폴란드압력에 항의, 6개항의 대소제재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6개항 중에는 ▲일본수출입은행의 보증중지▲일·소과학기술교류협정에 의한 기술교류중지▲대소수출품목제한▲일·소간의 외교활동제한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歐共市(EEC)를 포함한 서구국가들이 일치된 행동을 취할것이라는 확신이 선 뒤라야 일본도 이 제재조치를 단행할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는 소련국영항공사소속 여객기의 일본착륙금지조치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신문은 또 일본정부의이같은 방침이 미국정부에 통고될것이라고 말했다.

메아리

아라비아의 熱砂로 찾아가 建設의 붐을 일으킨 韓國企業들은 이제 酷寒의알래스카를찾아 開發의 땀을 뿌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유수한 企業들이 새해들어 다투어 地球의 極地라고 할 알래스카로 진출, 油田과 炭田, 그리고 漁業분야의 開發과 合作투자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있다.

알래스카─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곳은 아니다. 요즘은 航空網의 확충으로 KAL이 태극기를 달고 하루 한번 이상 그곳 앵커리지에 離着陸을 한다. 공항의 免稅店엔 KAL이 도착하는 시간이면 販賣員이 한국교포들로 교체되기도 하고 터미널의 안내방송에서는 우리말이 흘러나오고는 한다.

불과 이몇년사이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본격적으로 우리 企業들이 멀고 어려운환경에도 아랑곳 없이 달려들어 낯선 생소한 이미지 그대로의 한국인의 얼을 심겠다고 나서는것이다.

〈알래스카〉란 말은 에스키모人들에게「本土」라는 의미로 통한다. 이 땅은 그들이 살던 그들의 땅이었다. 에스키모人은 北아시아人의 친척이 된다는것이 血液검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西紀前 6천년에는 알류산文化라고 불리는 훌륭한 문화를 누리기도 했던곳에 北아시아人의「친척」이 옮겨 살았던 모양이다.

凍土의 常綠樹

그알래스카가 시베리아의陸續地가 아니라는것을 발견한사람은 1741년 丁抹의 비투스·요나센·베링이란 탐험가. 그는 그보다 13년전에도 시베리아의 땅끝까지 다다랐으나 그끝을 확인치 못하고 돌아가 두번째로와서 알래스카를 발견하였다. 그가 찾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사이를 흐르는 바다를 명명하여 추모하는 뜻으로〈베링海峽〉이라 하였다. 차르의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支配하고 있다가 지금의 美國에 領有權을 넘겨준것이 1867년10월18일. 당시 7백20만달러를 받고 팔았었다.

19세기말에 金鑛이 발견되어 너도나도 알래스카로!하는 골드·러시가 일었고 오늘에는 油田과 炭田의발견으로 全美國을 통틀어 1인당GNP最高의 州가 되었다. 石油의 추정埋藏量은 프루드호灣에서만도 8백억배럴. 石炭은 20~30억톤의 매장을 헤아린다. 州政府는 收入을 쓰고도 남아 30억달러를 「永久基金」으로 재어놓고 있다.

알래스카에 진출하는 韓國의 企業들은 세계의 어디에든 달려가는 開拓者의 모습답게 이번에도 凍土의「常綠樹」가 되기를 바란다.

美、生化學武器예산 大幅증액
蘇실전능력對應…83年에 8億弗

【워싱턴15日UPI=聯合】 레이건행정부는 오는83회계연도 예산에 생물및 화학무기 개발예산을 8억1천만달러로 대폭 증액키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등 전반적인 대규모 생화학무기체제 개발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1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紙는 미행정부와 의회소식통을 인용, 미행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운 신경가스등 생화학무기생산개시를 결정할수있는 만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두었다고 밝히고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이 이에대한 최종단안을 내리고 의회에 생화학무기생산 필요성을 증명하며 맹방들과 이를 협의하는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83회계연도 예산에 책정할 계획인 8억1천만달러의 생화학무기개발비가운데는 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고 레이건 행정부는 이밖에 전반적인 생화학무기 개발체제를 위해 84회계연도 예산에 약14억달러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회계연도의 생화학무기개발예산은 4억5천5백만달러인데 80년도 이에관한 예산은 1억5천7백만 달러에 불과했고 81년도 예산은 2억6천2백만달러에 머물렀다.

미군사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소련의 생화학무기개발에 대비, 미국의 생화학무기체제도 현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미국방성 전문가들은 소련은 이미 이같은 무기의 실전사용능력을 상당수준으로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

美·蘇, 각각2名씩 收監者들 교환釋放

【런던16日AP=聯合】 미국과소련은 내주초 자이레수도 킨샤샤에서 각각2명의 수감자들을 교환석방할 것으로 믿어진다고 런던의 더·타임즈지가 16일보도했다.

이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미국은 지난80년 앙골라에서 반군단체 UNITA(앙골라독립연맹)에의해 포로가된 2명의 공군조종사를 소련은 지난76년 앙골라 내전중 체포돼 투옥중이던 2명의 미국인 용병을 상호교환석방할것이라고 덧붙였다.

蘇、붉은旅團에 武器
팔機構통해 「샘7」등供給

【로마15日UPI=聯合】 소련과 리비아는 지난수년동안 한팔레스타인기구를 통해 이탈리아 도시게릴라단체인「붉은여단」및 다른 여러단체에 샘7미사일등 최신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이탈리아검찰이 15일 비난했다.

페르디난도·임포시마토검사는 이날 지난78년에 발생한 알도·모로前수상납치살해사건 가담자84명에대한 기소장에서 소련비밀경찰(KGB)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도 다른 한팔레스타인단체를 통해 「붉은여단」과 KGB의 중개자로 행동하고 있는 「戰線」단체에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고위관리가 이탈리아게릴라단체에 대한 소련의 무기공급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포시마토검사는 이 기소장에서 현재복역중이면서 경찰에 협력하고 있는 2개 극좌도시게릴라단체 테러범들의 말을 인용, 팔레스타인단체로부터 무기를 밀수입해온 자는 지난3년동안 경찰의수배를 받아온 극좌과격파인물인 마우리치오·폴리니라고 밝혔다.

그는 폴리니가 단순한 무기상이 아니라 국제테러조직의 고위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련이 공급한 무기 가운데는 샘7 지대공미사일、對전차로킷트포및 칼라츠니코프기관총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82년도 미스프랑스 82年度 미스프랑스로 뽑힌 사브리나·베르바르孃. 16歲의 學生으로 취미는 스키라고. 【키스톤=聯合】

外信알레나

◆캄·東獨、軍事協定調印=친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정권과 동독은 프놈펜에서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캄보디아의 SPK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협정이 캄보디아 수상서리겸국방상 찬·시와 동독국방차관 하인츠·호프만간에 서명되었다고 말했으나 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방콕=AP】

◆홀드리지、中共방문마치고 日寄着=미국은 中共과의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東京을방문한 존·홀드리지미국무성 동아시아·太平洋담당 차관보가 15일 말했다. 【東京=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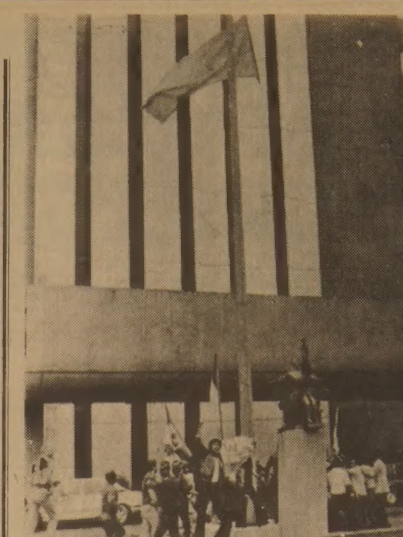
◆알바니아、카르카니首相취임=지난해12월 자살한것으로 알려진 알바니아首相 메메트·셰후의 후임에 승진된 아딜·카르카니(60)는 15일 알바니아人民議會(국회)의 승인을 얻어 새수상에 취임하고 內相을 비롯한 일부각료를 단행했다. 【빈=AP】

◆시리아、蘇와 골란合併대응책 논의=소련을 방문중인 시리아의 압둘할림·카담外相은 蘇聯관리들과 최근이스라엘의 골란高原합병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후 15일 귀국했다고 蘇聯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어떤 조치들이 토의됐는지에 관해 밝히지않았다. 【모스크바=AP】

1천3백80명對象 언론人研修교육
18일부터 실시

한국언론연구원(원장 尹王述)은 올해 모두 1천3백80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언론인研修교육을 실시한다.

올해研修교육은 修習기자들을 대상으로한 기초과정2개期、5년이하 경력의 初級과정5개期、5년이상 次長대우까지의 中級과정8개期、部次長을 대상으로 세미나형식으로 진행될 上級과정2개期와 특수과정 10개期로 나뉘어 실시된다.



◇브祝賀메시지에抗議하는 印尼청년 레오니드·브레즈네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이 불법화된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축하메시지를보낸데 항의, 인도네시아전국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자카르타주재 蘇聯대사관앞에 게양된 蘇聯국기를 끌어내리려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있다. 【자카르타15日AP電送=聯合】

◇失踪소동뒤의 微笑 파리~다카르間 자동차경주대회 출전중 실종됐던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의 아들 마크君이 실종6일만인 14일 사막에서 구조된후 동료 운전사인 샤를로트·베르네이孃과 함께 미소짓고있다. 【티메이아운(알제리) 15日AP電=聯合】

다시 고개든 폴란드 反유태主義
자유勞組운동 彈壓위한 「贖罪羊」으로
3萬名중 8千남아…反유태團體 조직

폴란드에서 반유태주의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폴란드내 8천여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은 야루젤스키군사정부에 의해 자유노조운동을 탄압하기위한 「속죄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계엄령선포이후 폴란드에서는「자유노조지도자들은 유태인」이라는 그릇된 소문이 파다하다.

바르샤바중심가건물벽들엔 반유태주의자들이 새긴 다윗의 큰별이 이곳저곳 눈에 띈다. 계엄령직후인 12월25일 폴란드북부도시 스체친의 공산당기관지는 장문의 반유태논설을 게재, 유태인들은 지난 1947년 이래 폴란드에서 말썽을 일으켜왔다고비난했다.

이 신문은 또 유태인들이 최근 자유노조와 관계를 맺고있는 반체제조직인 KOR(사회자위위원회)를 통해 정권탈취를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논설신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KOR지도자 애덤·미크니크가 유태인이고、또한 자유노조행동원인 카롤·모든젤레프스키는 이름만 폴란드인이지 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기관지 프리뷰나·루두는 지난12월18일자 기사에서 레흐·바웬사의 고문으로 현재 구금중인 유태인 역사학자 브로니슬라프·게레메크가 1967년 이스라엘의 아랍침공후 그의 수정주의적 전해를 발표、사회주의공동체이론을 그의 시온중심주의사상과 연관된 반사회주의활동선전에 이용했다고 공격했다.

폴란드당국은 게레메크가 KOR지도자 야세크·쿠론처럼 자유노조의 과격한 고문이라고 지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쿠론과는 달리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폴란드에서 지난67년과 68년사이 시온주의자 9천여명이 실직당하고 유태인3만명중 대부분이 서방으로 망명하는 비극이 벌어진이래、반유태주의 선전인쇄물이 맨처음 나돈것은 자유화운동이 시작된 80년여름이었다. 또한 2차대전중 스탈린주의자들의 통치기간에 희생된 유태인을 추모하는 소규모집회가 지난81년3월 열린후에는 그룬발드라는 반유태조직이 출현하여 「현실」이라는 한 극단주의신문과 관련을 맺고 당국의 비호아래 음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자유노조 지도자들은 당국이 KOR와 자유노조를 공격하기위해 반유태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룬발드주종자들과 국민들에 계속 경고를 해왔다. 【金善敦기자】

天安방송국 年內설립
KBS 14곳에 TV中繼所도

충남天安지방에 방송국이 새로선다. 한국방송공사(KBS)는 天安지역일원의 라디오·TV난시청해소와 북괴방송전파를 막기위해 총14억6천1백만원을들여 天安방송국(출력10kw이상)을 연내설치키로했다.

이로써 KBS지방 방송국은 22개로 늘어난다.

충남 서북부지방의 로컬방송권을 구성하게될 이방송국은 洪城 瑞山송출소와 서천등 4개중계소를 관리하게된다.

이지역은 차령산맥이 동서로 가로놓여 방송청취가 어려웠고 韓電界지역으로서 中共전파의 방해를 받아왔으며 특히 서북해안은 북괴의전파방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天安방송국은 이같은 난시청해소외에도 수도권광역화、제2국제공항의 건설、서울~大田간 고속전철 건설등에따른 인구증가에 대비、그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天安시는 이같은 필요성을 들어 작년3월 관계당국을통해 방송국신설을건의해왔다.

한편 KBS는 전국난시청지역의 해소를위해 올해TV중계소14개、라디오중계소12개소를 설치할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TV의 가시청권확대를 위해 陝川 大邱 光州 春川 大田 清州 蔚山 浦項 江陵 安東 濟州등지에 UHF중계소를、西歸浦엔 VHF중계소를 각각 설치할계획이다.

이밖에 57개지역에 간이VTR를、2개소에중파중계소、10개소엔 FM중계소를설치、라디오가청권도 넓힐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韓·쿠웨이트 航空협정發效

韓·쿠웨이트간의 航空協定이 양국정부간의 국내批准절차가 완료됨에따라 지난12일字로 發效됐다고 15일 외무부가 밝혔다.

작년10월 서명된 이협정의 발효로 78년3월부터 양국항공사간의 轉務協定에의해 임시운항해온 대한항공(KAL)에 대해 정식운항을위한 협정상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우리民航의 中東路線확장도 유리해졌다.

韓國開發硏究院長 金基桓씨

정부는 16일 金滿堤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의 사표를수리하고 金基桓씨(산업경제기술연구원 연구위원·사진)를후임원장으로 내정했다. KDI는 18일 이사회를열고 후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金基桓씨약력 ▲경북출신(50세)·美예일대학 대학원수료▲59년캘리포니아 버클리大▲71년經博▲70~76년 美포클랜드大부교수▲77~82년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海外토픽

★加、人力없어그대로放置 파출소巡警들 절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스트라드로이市에 있는 파출소의 경관4명이 모두 절도·난폭운전으로부터 폭행등에 이르는 현사범죄혐의를 받고있어 세인을 놀라게하고있으나 그대로근무하고 있다고.

시당국은 온타리오州 경찰조사결과 이파출소의 소장인 윌리엄·스미드가 절도·폭행등 11개의 혐의를、그리고그의 부하인 3명의 순경들도 각각4개내지 6개의 혐의를 받게됐으나 市의 치안기능이 마비될것이 두려워 어쩔수없이 기소절차를연기하고있다. 【스트라드로이=UPI】

★싱가포르副首相강조 "野의회진출 有害"

시나탐비·라자라트남 싱가포르부수상은 16일 싱가포르의회에 야당 1석이 진출함으로써 입법부를「정신병원」으로 바꾸어 놓을것이며 집권 인민행동당(PAP)의 보다 나은 정책진행에 도움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자라트남 부수상은 이날 PAP 관계자들에게 행한연설을통해 야당1석이 정부로하여금 보다나은 업무수행을 하도록 만들것이라는 주장은 감상적이고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싱가포르=聯】

★사우디大使의딸 잠적 "왕자와 結婚싫어"

스웨덴경찰은 스톡홀름주재 사우디대리대사의 한딸로서 사우디의 왕자와 혼인하기로 됐다가 이결혼이 싫다며 잠적해버린몸해19세의 아불라·파티양을 찾아나섰다.

파티양은 부모가 정해준사우디왕자와의 결혼을 위해작년12월22일 사우디로 귀국했어야했으나 부모의 결정을따를수 없다며 자취를 감추었다는것. 【스톡홀름=AP】

部處間 첫 交流人事
次官補級 4명 轉補발령

財務部차관에 姜慶植씨
企劃院차관보 河東善씨
豫算 室長에 曺京植씨
財務2차관보 李鎭高씨
國防2차관보 姜信祚씨

정부는 16일 部處간의 人事교류를 가능케한 改正국가공무원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1級공무원 4명에 대한 交流人事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字로 1급이던 姜慶植씨가 재무부 차관으로 승진함으로써 空席으로 있던 기획원 차관보에 河東善재무부 2차관보、역시 공석이던 기획원 예산실장에 曺京植기획원 2차관보、재무부 2차관보에 李鎭高기획원 공정거래실장、국방부2차관보에 姜信祚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기획원 公正去來실장 직무대리에 陳稔기획원 물가국장을 각각 轉補 발령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部處간뿐아니라 中央과 地方간의 인사교류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4월 改正된 국가공무원법32조2항에는「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교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대통령의 승인을얻어실시할수있다」고규정돼있다.

집값의 25·7%가 稅金
37坪 아파트경우 919만원내야
讓渡稅등 入住者부담
無住宅者위한 緩和策있어야

주택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을뿐 아니라 아파트분양에는 중복과세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江南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입주자들은 집값의 25·7%를 세금및 수수료、채권매입등 諸稅公課金에 낸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관계기관이 조사한 81년중 서울江南지역 아파트분양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자들이 대지를 구입했을때 취득세 2%、등록세 3%、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냈고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재산세 1%및 이에따른 방위세 20%、공동시설세를 포함한 도시계획세를 냈으며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건물에대한 취득세 2%、등록세(보존등기) 0·8%와 稅額의 20%인 방위세、부가세 10%를 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주택채권매입、토지형질변경 허가에따른 지하철공채매입、등기수수료、법인세、대지구입할때의 양도소득세전가부담、공용시설부담비용이 가산되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구입한 최초입주자들은 별도로 취득세 2%、등록세(이전등기)및 이에따른 방위세20%、주택채권매입、등기수수료、인지세등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제세공과금의 실제액수를 계산해보면 지난81년중 서울江南지역에서 분양된 37평형(전용면적26~27평형)아파트의경우 분양가격이 3천5백69만7천6백원(坪당96만4천8백원)이나 분양가격에 포함된 세금및 공과금은 6백86만9천3백64원으로집값의 20%를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사업자의 제세공과금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는것이고 입주자는 별도의 세금으로 또다시 부담해야하므로 최초 입주자가 부담한 세금및 공과금총액은 아파트분양가격의 25·7%인 9백19만1천5백89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의 아파트는 ▲주택사업자에게 부가세、등록세、양도소득세、채권매입등이 면제되고 ▲최초 입주자에게는 등록세50%감면등의 혜택이 있으나 실제부담비율은 큰차이가 없으며 단독주택은 대지가넓은데다 단독설비공사 부담이 커서 세제공과금부담비율이더욱높을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처럼 많은것은 주택건설업체가 법인체이므로 취득세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내무부 싯가 표준액이 아닌 장부상가격(실제 거래가격)으로 되어있고 최초입주자에게 대해서도 분양가격기준으로 과세、사실상 2중과세하고 있을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양도자가 아닌 취득자에게 사실상전가부담되고있기때문이다. 또재산세및도시계획세등은싯가표준액기준으로과세되고 있으나 과표(통금)를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이 인상해와 실질부담액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민간주택건설업계는 올들어서도 주택거래및 아파트 분양에따른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날것이라고 지적、세금부담이 완화되지 않는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人種차별 철폐會議 政府、代表團을파견

정부는 유엔본부에서 15일 개최된「모든 형태의 人種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8차當事國회의에 朴銖吉駐유엔대표부공사를 수석으로하는 대표단을파견했다고 16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輸出 계속好調 14일간 4억弗

올들어서도 輸出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16일 상공부가 집계한 14일 현재의 수출실적은 4억5천만달러로 前年同期對比 40·2%가 증가、하루평균 4천5백만달러의 실적을 유지하고있다.

지난해 9월이후 輸出信用狀來到실적이 저조해 한동안 불투명했던 수출이 올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은 纖維類및 일부機械類의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반해 輸出信用狀來到額은 여전히 부진、14일현재 前年同期對比 5·1%가 감소한 4억9천9백75만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民正、院內副總務에 李致浩의원을 任命

민정당은 16일 李致浩의원(大邱南壽城)을 원내부총무로 정식 임명했다.

政府廳舍管理所長 金學文씨任命발령

정부는 16일 총무처정부청사관리소장에 金學文예비역육군준장을 임명하고 李鍾得청사관리소장은 所請심사위원으로 轉補했다.

뉴─서울

이 상 배
─서울 미조리 화식부 4년
─서울 일력 화식부 5년
─서울 프라자호텔 화식부 4년
─조선호텔 화식부 5년
─국제호텔 화식부 주방장 재직중
캐나다 뉴서울에 취업이민
※스시바 써비스 오후6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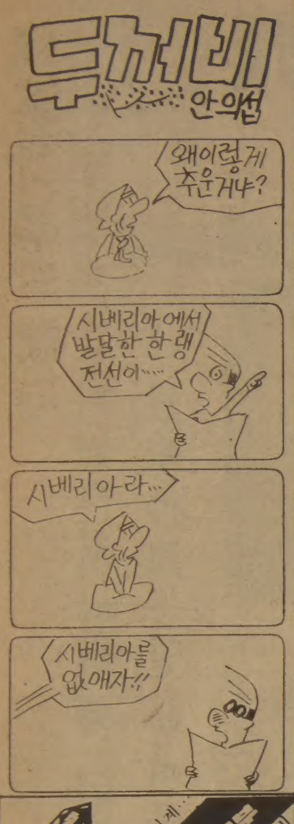
★음식맛이 좋아졌읍니다.

★서울에서 일류요리사 고용

☆국수계의 일류요리사 전 서울집
정현기씨 뉴서울로 오다.

529 BLOOR ST. W.
533─1500

✣오리엔탈 EXPRESS
(주7일공연)
매 일─오후8:30~새벽1시
일요일─오후8:00~오후11시



맥주 2億臺 不法거래

5명구속 稅務자료없이 팔고사

稅務員 뇌물받고 눈감아줘

【釜山=聯】釜山시경 수사과는 16일 세무자료없는 맥주를 대량으로 빼내 부당이득을 취하고 유흥업소업주들에게도 거액의 각종 세금을 포탈케한 金두식씨(29·光州市北區良東洞 634)李武朝씨(31·釜山市南區大淵洞 987)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釜山海雲臺 세무서직원 李貞雨씨(29)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맥주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일반유흥업소에 공급해준 朴순돌씨(24·釜山鎭區釜田2洞12)등 중간판매책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 金씨등은 지난해 7월부터 C맥주 光州지역 대리점인 金화상사·러키상사등으로부터 세무자료가 붙지않는 간이음식점판매용 맥주를 거래처에 실거래한것 처럼 허위자료를 꾸며 대량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그동안 1만2천3백여상자(싯가 2억1천만원)를 불법출고, 정상거래액인 상자당 1만4천8백원보다 3천1백원씩 비싸게 釜山등지에 팔아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釜山총책인 李씨등은 金씨로부터 재무자료가 없는 맥주를 받아와 釜山시내 6개 중간판매상을 통해 유흥업소에 팔아온 혐의이며 세무공무원 李씨는 지난해 12월 釜山市南구大淵동에 있는 이들의 비밀창고에서 이같은 불법거래사실을 적발하고도 50만원의 뇌물을 받고 묵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國外안내원」제도 新設

외국어 전혀 할줄몰라도 마음놓고 외국觀光즐기게

외국어를 전혀 할줄 몰라도 마음놓고 해외관광을 즐길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6일 올해부터 해외여행완화조치에 따른 내국인들의 해외관광이 붐을일것으로 보고 여행자의언어장벽과 현지 여행안내등을 도맡도록 하기위해 관광사업법을 개정, 국외여행안내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여권절차간소화등 해외여행 완화조치이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고있는데다 오는 7월1일부터는 해외초청자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할경우 해외관광을 할수있고 내년부터는 50세이상에 관광비자가 발급되면 해외여행붐이 예상되는데 이들 해외여행객들이 언어장벽과 여행지식이 없어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취해진 것.

교통부는 이를위해 고교졸업이상자를대상으로 여행안내원자격고사를거쳐 선발된 사람들에게 국제관광공사 에서 3개월이상의 외국어교육·호텔및식당사용법, 관광지식 외국의풍습등 여행안내에필요한교육을시킨후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증을주어 안내를맡도록하게 한다는것.

교통부는 우선1차로 올해안에 1백50명의안내원을 양성할 계획인데 1백명은 자격고사합격자로 나머지 50명은 일선여행사 실무경험자나 국제관광공사 훈련요원중 1년코스를거친 사람에게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過速트럭 人道돌진 母子등 넷絶命

【順天=聯】15일하오5시께 전남高興郡豊陽面野幕里죽시부락 시외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順天순영청과소속 전남7아2980호 화물트럭(운전사 徐光準·32)이 갑자기 인도로뛰어들어 버스를 기다리던 金錦子씨(40·光州市東區鶴林3洞118)金씨의 아들 李형광군(14·光州숭의중1년)모자와 柳順愛양(13·豊陽교6년) 金文子씨(35·豊陽面梅谷里340)등 4명을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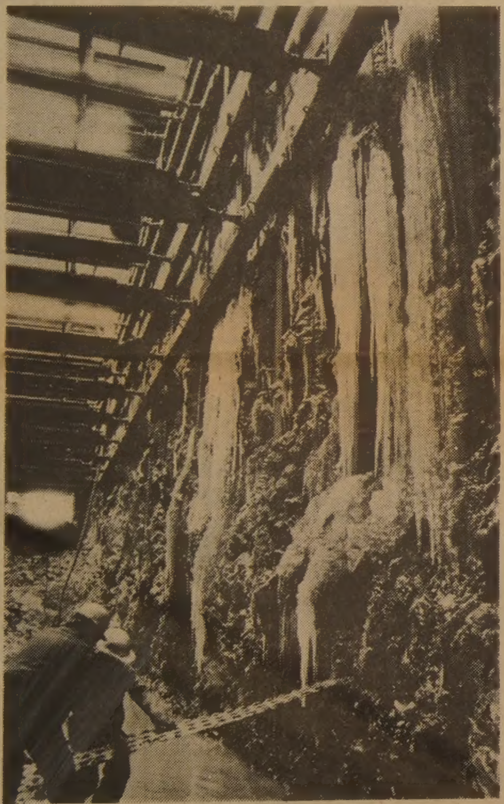
또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金甲基씨(28·新安郡荷衣面五林里)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高興읍내 영춘의원등 3개병원에 입원중이나 金씨등 4명은 중태이다.

高大 學生處長에 朴萬藏교수 임명

高麗大는 15일자로 학생처장에 朴萬藏교수(理科大물리학과)를 임명했다.

淑大 首席졸업에 獨文科 辛惠良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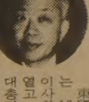
81학년도 淑明女大 수석졸업은 독문과 辛惠良양(23·馬山여고졸)이 차지했다. 辛양은 평점 4·5점만점에 4·18점을 얻었다.



◇地下鐵공사장이 「고드름 洞窟」로 — 20여일간 겨울을 잊게했던 暖冬골에 들이닥친 지각한파가 주말까지 계속돼 전국을꽁꽁얼어붙게했다. 중앙기상대는 일요일인 17일에도 맑은 동부의 한랭한고기압영향으로 서울중부지방은 최저영하15도~영하12도, 최고영하1도~영하3도, 남부지방도 최저영하11도에서 영하7도, 최고0~1도등 전국의날씨가 영하권에들겠으며 이같은 한파는 내주 이후라야 다소 위세가 꺾일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新村 지하철공사장에 길이15m, 폭10m의 초대형고드름이 열린 혹한속에 공사를강행하고 있는 인부들. 【16일 하오4시 서울新村지하철 공사장6-13공구 朴泰弘기자찍음】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東國大총장 黃壽永박사



東國大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10대 총장에 대학원장 黃壽永박사(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黃총장은 지난41년 東京제국대학을 졸업, 54년부터 東國大교수로재직중인 미술사학계의 중진으로 71~7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을거쳐 문화재위원장을 맡고있다.

퀸 엘리자베드號 3월10일 釜山에

【釜山=聯】호화여객선인 英國의 퀸·엘리자베드호와 노르웨이의 사가·F·조르드호 및 스웨덴의 페랄·스칸디나비아호등 3척이 세계일주관광운항중 오는 2월11일부터 6월17일사이에 각각 釜山항에 처음으로 입항한다.

또 英國의 퀸·엘리자베드호(6만7천1백톤)는 오는 3월10일 상오8시 관광객1천7백53명과 승무원5백여명등 모두 2천3백명을 태우고 홍콩을 출발, 釜山항에 처녀입항한다.

盲人협동조합 희망찬 첫발

어제 서울明洞성당서 創立총회

어린이등 1백50명이 組合員

"스스로 社會푸대접"극복運動

맹인들만이 모여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사회의 냉대와 몰이해속에 사실상 고립돼살고있는 맹인들이 『내가 먼저 사회를 이해하고 배우자』면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선언했다. 이들의 참된 의지가 돋보이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정상사회는 왠지 부끄럽고 안스러워지는걸 어쩌지못한다.

◇맹인들이 모여 만든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사회의 이해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를 배우며 살자』는 표어에서 가벼울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

선데이 스토리

16일 상오11시 서울明洞성당 사도회관에서 창립된 이 조합은 이름도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이사장 黃鳳佳·44). 어린이 38명을 포함 서울지역의 조합원 1백5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赤十字중앙혈액원등으로 부터 따뜻한 격려전문이 답지하는 가운데 1시간남짓 계속됐다.

이들이 조합을 구상한것은 지난해 9월부터. 『사회의 이해를 호소만 할것이 아니라 자조적인 모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앞못보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들은 우선 11월7일부터 3차례에걸쳐 延世大 李三悅교수등 전문가들을 초빙, 신용협동조합에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 그해 12월23일에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과정에서 中央大사회개발대학원의李基元씨(35)가 맹인도 아니면서 실무를 도맡아 추진작업을도왔다.

안마施術所 건립이 꿈

低利융자등 福祉향상 큰기대

이조합은 회원수 2백명, 출자금 2천만원이상이라야한다는 규정때문에 아직 재무부의 정식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현재 조합원의 출자금은 2백만원으로 조합은 연내에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창립과정에서도 『생보자로 양식을 배급받으면서 조합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등의 냉대도 많이 받았다.

조합원 趙落桂씨(36·서울中區會賢洞 시범아파트 303호)는 사회의 이같은 푸대접은 대부분이 안마사들인 이들이 조합을 만들면 호텔의 눈뜬안마사 채용때처럼 집단으로 말썽을 부릴까봐 이를 꺼리는데서 나온것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있고 점술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류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사장 黃씨도 4세때 급성드라코마로 실명한뒤 안마원을 경영, 조합원들중에서는 그래도 생활이 나은편이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날 창립된 조합은 우선 黃씨의 안마원을 사무실로 쓰고 이사장등 임원들은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공문등 각종서류도 점자와 묵자(일반인용) 2가지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는 내년2월부터 출자금의 5배까지 해주기로 했다. 대출이자도 연24%를 넘지않게 하는대신 정부의 금리변동이 있을경우 지휘감독기관의 시달사항을 따르기로 했다.

이날 총회의 사회를맡았던 梁萬錫씨(37·서울맹학교교사)는 이 대부가 『조합원들이 안마시술소를 차리는등 사채를 얻을때 고리(高利)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기대하고 『앞으로 생필품구매사업도 벌여 조합원에게 염가로 공급, 이익금은 조합원들을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은 기대에 차있었다.

梁씨등 7명은 지난해 12월 日本大阪에서 열린 세계맹인복지운동국제회의에 참석, 크게 고무를 받고왔다는것. 梁씨는 『전세계에 4천2백만의 시각장애자가 있다』면서 『이 조합의 창립은 우리나라가 맹인문제에서는 선진국이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은 原州의 밝음신협, 서울 麻浦區大興洞의 신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맹인과 정상인들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도 했다.

조합원 후보자로는 서울에만 6천5백명의 맹인이 있기때문에 이 조합의 할일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편. 광명을 잃은 2남을 위해 조합에 가입했다는 金貞姬씨(43·여)는 『본인및 직계가족과 부모로만 한정된 조합원자격을 앞으로는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맹인들의 회의진행은 서투르기 짝이없어 엄뚱한 벽을향해 국기례를 하거나 애국가봉창도 음정이 제대로 맞지않았지만 회의장안을 비추는 햇살은 이들의 희망찬 새출발을 축복하는듯 마냥 따스하기만했다. 【任龍淳기자】

울릉도 暴雪112㎝

漁船1隻침몰

계속"펑펑"…交通끊겨

【大邱=聯】慶北 鬱陵島에 1m이상의 눈이내려 입항하던 어선이 시계불량으로 좌초, 침몰하는등 피해를 내고 있다.

鬱陵군내에 15일하오부터 16일새벽4시까지 평균 1백12㎝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상오8시현재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눈으로 울릉도내 일부지역의 통신과 교통이 두절돼 정확한 피해상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15일하오6시50분께 鬱陵郡鬱陵邑沙洞항 해안쪽 3백m 지점에서 도동항 선적 동성호(4·04톤급·선장 朴명식·31)가 눈보라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좌초, 침몰했으며 40여척의 어선이 대피소동을 빚었는데 침몰한 배의 선장 朴씨등 선원6명은 긴급출동한 구조선등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88올림픽準備 크게報道

카타르紙 "人類平和제전"

【마나마(바레인)15日=聯】카타르의 英字紙 걸프·타임즈는 14일 全斗煥대통령의 말을 인용, 韓國이 오는88년 서울올림픽대회가 「인류를위한 평화제전」으로 치러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6단으로보도한 서울올림픽 관련기사에서 『全대통령은 오는 88년 올림픽대회에서 정치성을 배제, 이대회를 인류의 평화제전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韓國정부가 서울올림픽대회를 韓國사상 최대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IOC委員長訪韓 4월7일 4일간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사마란치위원장이 오는 4월7일 하오 3박4일의 예정으로 기요까와부위원장(日本)과 세이크·파드위원(쿠웨이트) 베르리유사무총장(프랑스)등과함께 내한한다.

대한 올림픽위원회(KOC)는 사마란치위원장의 방한일정을 IOC와 협의, 16일 방한일정을 최종확정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방한중 정부및 체육관계자들과 88년 올림픽개최대책을 논의하고 蠶室스포츠 시설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데盃 한국代表팀 어제 필리핀向發

데이비스·컵 테니스 동부지역 예선대회 준준결승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이 16일 하오 필리핀으로 떠났다. 한국은 필리핀과의 경기서 이길 경우 3월에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전 승자와 동부지역 준결승전을 벌이게 된다.

億臺재산 해외도피 大邱문화유리 대표

치안본부는 억대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大邱문화유리(주) 대표이사 崔호영씨(51·大邱市南區大明洞1644의3)와 崔씨의부인 安明珠씨(52)등 2명을 국내재산도피방지법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崔씨부부는 지난해3월 소유부동산을매각, 1억6천여만원을마련한뒤 이를 해외로빼돌리기위해 미국으로 이민가있는차남 최성철씨(27)의 주택구입비와 생활비명목으로 암달러상을 통해 21만2천6백달러(한화1억5천만원)로 바꿨고 81년4월14일 밤9시 플래스틱 고추장통속에 환전한 미화를 숨겨 KAL 012편으로 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사교춤교습

금요일저녁(1월29일~4월2일)10주동안
*기초반(오후7시30~9시까지)
내용: 한국식 각 댄스의 기본스텝
부루스, 지루박(한스텝, 두스텝)
도롯도, 월츠.

*중급반(오후9시~10시30분)
내용: 기초반을 마친분으로 각댄스의
고급 스텝및 지루박(삼박자스텝)
탱고 탱고, 차차차.

*교 사: 김 유 수 (현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UBS 교사)
*장소및 우편신청: Y. KIM(WINDERMERE UNITED CHURCH)
356 WINDERMERE AVE. TOR. M6S 3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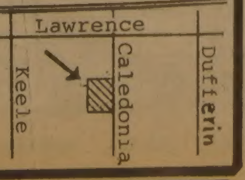
*문 의: 366-4728, 769-5611
*회 비: 싱글 $40, 커플 $70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Jan. 11 - Jan. 22 '82		Special
Vicks cough drops	20x40¢	4.95
Acta throat soothers	20x40	4.75
Bazzooka gum	480x2¢	5.99
Y & S strawberry cigar	48x10	2.89
Y & S strawberry Mr. Chew	48x10	2.89
Y & S twizzler Red & Black	60x10	2.99
Moirs Bag candy	24x25	3.09
Leaf Ball of Fire gum	48x5¢	1.45
Peter Puck	24x25	3.75
Neilson & Rowntree Reg. Choc.	36x40	9.9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서울대학교동창회
신년파티및정기총회

1982년도 신년파티및 정기총회를 아래 요령으로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 : 1982년1월30일(토)오후6시
곳 : Hotel Triumph(Keele St × 401북쪽)
·참가비 : 커플 : $50 싱글 : $30
※참가통고를 다음 준비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 해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배찬규 : 270-3353, 정우섭 : 270-2663
김동수 : 270-5515, 송경란 : 492-7710
이창수 : 1-579-3684(Whitby)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운영위원장
이 창 회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쿨—쿨"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내가 우승하는 꿈을 막꾸었어!"

"멋진꿈이었지만 기진맥진한데!"

"쿨—쿨"

서울서 國際野球執行委 개최
世界大會 참가국 選定
2월13일

아마추어야구대표팀의운영에 빠이 마비상태진가운데 오는 2월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의 참가국을 결정하는국제야구연맹(AINBA)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열린다。

세계아마추어야구인들의가장큰 잔치인 세계선수권대회는 아시아대륙에서는 두번째로 9월4일부터 보름동안새로이 건설되는 잠실운동장을 비롯、서울·仁川·淸州·大田·春川공설운동장등 6개구장에서 벌어진다。한국은 80년 東京대회에서 日本과함께 공동2위를 차지했으며、쿠바는 80년까지 16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서울)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2개 참가국에 대회개막 45일전까지 정식초청장을 발송하며 대진일정 작업에 들어가게된다。

◆대회기간=9월4일~18일(15일간)
◆참가국=12개국(아시아·유럽·北美·中美·南美등 집행위가 지역별로 안배)
◆엔트리=임원5명、선수20명
◆참가비=팀당 3백달러
◆경기방식=라운드·로빈·시스팀
◆경기장=잠실(5만명 수용·펜스거리 100-125-100) 서울(3만명·98-110-98) 仁川(1만5천명·93-110-93) 大田(1만2천명·98-114-98) 淸州(2만3천명·99-110-99) 春川(1만명·98-120-98)
◆선수단 숙소=호텔신라·

◇서울 世界野球大會 포스터。

예산7億여원 確定 陸上聯 대의원총회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6일 대한체육회강당에서 8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서울국제마라톤대회、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등 7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육상연맹은 제1회 전국고교단축마라톤대회 실업단및 대학대항30㎞ 단축 마라톤대회、범국민달리기대회등 새로운 대회를 신설키로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 金光培 畫
한옛날에 ⑫ <12>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성공시킨 일이 허사였다고 후회하지 않기위해서도 수지는 편안해져야만했다。가짜로라도 편안해져야했다。

이제 드문드문 만날수 있었던 피난민조차 만날수 없게됐다。앞뒤로 희게 뻗은 국도가 턱 없이 광활하게 느껴지면서 네식구의 마지막피난민은 피난을 가고 있는게 아니라 국도의 소실점(消失點)이 끌어잡아당기고있는 것처럼 의식없이 일정한 보조로 앞으로 가고 있었다。

수지는 수철이에게 무섭다고 말하려다 말고 참았다。잔뜩 경직돼있는 수철이의 모습이 자신의 무서움증을 참기에도 힘겨워 보였기때문이다。엄마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제각기의 몸무게만큼、아니 먹은 나이만큼의 무서움에 짓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수지네 네 식구는 한때의 피난민과 섞이게 되었다。땅에서 솟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었다。사람이 몹시 그리웠었는데도 막상 사람을 만나니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막연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들은 불길한 냄새를 지니고 있었다。헤어져 다시 고립되고 싶었다。그러나 그들의 보조는 수지네와 똑같아서 좀처럼 헤어질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수지네 식구는 서로 똘똘뭉쳐서 서로의 무서움증을 확인하는 게 고작이었다。무서움증이 더 이상 참을수 없이 고조됐을 때였다。

어디선지 비행기한대가 날아왔다。공기가 온통 쇠붙이로 돼있는 것처럼 한대의 비행기가 공기와마찰하는 소리는 지긋지긋한 쇳소리였다。순식간에 새로만난 피난민들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영문모를 쇳소리에 혼비백산한 수지네 식구만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했다。마치 국도가 커다란 키가 되어 가련한 네식구를 들까불고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잠깐의 일이고 비행기가 엄청난 크기로 확대되면서 그들을 겨냥하고 달려든다고 느끼면서 그들은 제각기의서있던 자리에 납짝하게 엎드렸다。기총소사의 굉음도 그뒤의 정적도 꿈만같았다。

감쪽같이 없어졌던 피난민들이 다시 땅에서 솟은 것처럼우뚝우뚝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양 앞으로 전진했다。다시 고립됐다고 느끼면서 비로소 식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네식구중 한명、엄마가 죽어있었다。한씨댁의 주검은 참혹했다。할머니와 오빠가 몸부림쳐 우는데도 수지는 따라울지않았다。

천벌이다。아아、천벌이다。

수지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자기가 천애의 고아됐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그것은 차마 눈 뜨고는 못볼 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말똥말똥한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고 비로소 속속들이 편안해지고 있었다。나쁜 짓을 하고 응분의 벌을 받았을 때처럼。

그후 수지가 나이먹음에 따라 다만 먹을것을 빼앗기는게 싫어서 동생을 일부러 내다버렸다는걸 도저히 믿을수 없을때가 종종 있었다。일곱살에 차마 그럴수는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그후 난리가 끝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짐에따라 일곱살 그런 아귀귀신으로 만든 굶주림의기억도 아득해졌다。

일곱살은 천사의 나이였다。길에서 만난 거지노인이나 엄마나 언니한테 말로만 들은 전쟁고아가 불쌍해서 그해의 새뱃돈이든 벙어리를서슴지않고 깨는 천사의 나이였다。

流星의 肺
<285>
李炳注 作 / 李友範 畫

風雅와 策謀 ⑯

갑자기 천하를 잡은 수길로선 이께다부자(池田父子)는 그기분을 상하게하기 싫은 상대였다。게다가 이께다부자 역시 수길을위해 대공(大功)을 세워 그들의 앞날을 개척하고 싶은 의욕에 들떠있었다。

이께다부자의 헌책(獻策)이란 이랬다。

『지금 가강(家康)은 전군(全軍)을 끌고 오와리에 나와있어 그의 본거지인 미까와(三河)는 텅텅 비어 있읍니다。그러니 은밀히 유격군(遊擊軍)을 조직하여 우회행군(迂廻行軍)해서 미까와를 공격하면 가강은 놀라 전선을 포기하고 미까와로 돌아갈 것입니다。그유격군의 선봉(先鋒)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수길은 이 제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만에 하나、가강이 이 작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복병(伏兵)으로써 유격군을 전멸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 그 패배가 전군(全軍)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튿날 이께다는 다시 그 헌책을 되풀이 했다。수길은 이께다의 마음을 붙들어두기 위한 배려도 없지않아 드디어 그 헌책을 받아들였다。그대신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시를 잊지 않았다。

곧 바로 유격군이 편성되었다。선봉은 이께다쇼오뉴(池田勝入)、중군(中軍)은 모리나가요시(森長可)、호리히데마사(堀秀政)등 오다시대(織田時代)의 맹장들을 선발했다。그리고 전군(殿軍)、즉 후진(後陣)은 히데쓰구(秀次)가 담당케하고、겸하여 유격군의 대장이 되게했다。

유격군의 총수는2만。오와리 가꾸뎬(屋張樂田)의 진지를 출발한것은 천정(天正)12년(1584년) 즉 홍계남이 일본으로 건너간 해의 6년전 4월6일의 심야。

그들의 행동은 은밀리에 진행되었기때문에 제일일의 행동은 착지당하지않았다。그런데 그이튿날 저녁무렵 가강(家康)이 밀정(密偵)으로서 수길군(秀吉軍)에 침투시켜 놓은 첩자、핫또리 헤이로꾸(服部平六)란 자가 급거 이정보를알린것이다。

수길의 일대(一隊)가 움직였다고 들은 가강은 회심의 웃음을 웃었다。가강은 일몰과 더불어 행동을 개시하여 적의 유격대의 허를 찔렀다。

『적의대장은 누구냐』고 가강이 물었다。

『히데쓰구입니다』

하는 부하의 대답이었다。

『어떤 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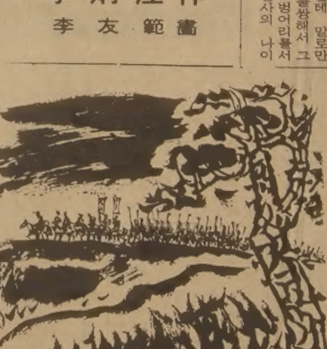
『수길의 양자이며 나이는 1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데쓰구의 장비가 이상하다고 했다。투구는 당관(唐冠)인데 입고 있는 옷은 이름 있는 무장(武將)들로부터 선물받은 진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자는 약한 것이다』

가강은 히데쓰구가 그런 진묘한 장비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약점을 숨기기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그렇게 판단한 가강은 공격의 목표를 히데쓰구가 이끌고있는 후군(後軍)에게 두기로 했다。방법은 포위전(包圍戰)。

하꾸산바야시(白山林)란 곳에서 히데쓰구군(秀次軍)은 야영(夜營)했다。동쪽은 고지(高地)로서 서편으로 경사해있고、도로는 골짜구니로 되어 남북으로 한가닥밖에 없으며 길양편은 울창한 숲이다。그 지형으로 보아、히데쓰구는 습격당하기위해 야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밖에 없었다。



國展개혁…무엇을 뜻하나
「타이틀君臨시대」지났다
기성作家 旣得權 타파로 새活氣
具象·抽象통일…평지풍파 막은 셈

이번 國展제도개선의 가장 큰 의미는 명칭이 바뀐데 있다。國展의 공식명칭인「大韓民國美術展覽會」가「大韓民國美術大展」과「現代美術招待展」으로 바뀐것이다。얼핏보아 그이름이 그이름같지만 굳이 명칭을바꿔야한다는데 국전의 고민이있었다。

官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절대적권위를 지니게 마련인 우리나라에서「國展」은 사실상 화가가 될수있는 필수적인 관문이되어왔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너무도 컸다。國展은 법학도들에게 고등고시같은 존재로 군림해왔는데 그 심사과정은 고시의 채점같은 객관성을 기할수없어 갖가지 추문을 낳게됐다。예술작품을 고시의 답안지같이 채점할 기준이없는데다 심사위원이 출품자를 환히알게되는것도 막을수 없다。

이런「불합리한」과정을거쳐 얻게된것이「추천」또는「초대작가」라는 타이틀이었다。이 타이틀의 위력은 너무나 컸다。추천작가의 타이틀을 따면 우선 그림값이 껑충 뛸뿐아니라 대학에서교직을 잡을때도 마치 일반화과에서의 학위와 같은 구실을 한다。國展심사위원이 되는데도 이 타이틀을 가져야 할은 말할것도없다。

따라서 國展30년간의 무수한 사건들도 원인을 따져보면 이 타이틀의 배점과직접·간접으로 관련돼있다。

이번 개혁으로 이 타이틀의 명칭은 해체됐지만 이것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될는지는 미지수다。

◇國展의 심사광경。객관적기준이없는 예술품의 심사여서 심사뒤에는 자주 추문이따랐다。

日帝때의 官展인「鮮展」의 경우 명칭상 國展과 크게 다르나 사실상「國展의 前身」같은 위치를 점했다。일반인의 인식도 그랬고 國展이 태동할 당시의 심사위원 초대작가등의 구성에서도 鮮展은 절대적인기준이되었다。

재작년부터는 國展이 문공부로부터 문예진흥원으로 소관이 바뀌었지만 國展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었다。

따라서「大韓民國美術展覽會」가「大韓民國美術大展」으로 바뀐지금은 새로운전람회의 이미지와 잠재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바뀔것인지에 제도개혁의 성공여부가 달리게되었다。

이것은 기성작가전인 現代美術招待展도 마찬가지다。이의 초대대상이 누가 될것인가는 앞으로 현대미술관政策자문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나 미술계 특히재야작가들은『초대대상의 선정기준을 크게 바꾸지않으면 명칭만의변화로 끝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이번 조치의 또한가지 중요한 개혁은 구상과 비구상으로 계열을 구분해서 심사하던것을 통일시키기로 한점이다。

미술의 표현양식이 날로다양해진 오늘날은 모든 양식이 혼합되게 마련이어서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분은 물론 회화와 조각의 구분이 애매할때도 있다。그런 마당에 구상과 비구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작년도의 30회 國展에서도 비구상회화에 가까운것이 구상화에 섞여있었으며 구상화같은 작품이 비구상화로 분류되기도 했다。이런 제도때문에 뚜렷한 전통이 없었던 東洋畵비구상부문에서「대등한 수상자」를 내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구분을 없앤것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다만 이로인한 있을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과제로 남는다。

그것은 회화와 조각이 구상과 비구상으로 분류된 과정을 보면 알수있다。

1961년의 제10회 국전당시 심사위원인 劉永國씨는 구상과 비구상을 따로 심사하자며 심사위원직을 사퇴했는데 이것은 구상작가들이 주류를 이룬 심사위원회가 비구상작품을 푸대접한다는데서 오는 반발이었다。

따라서 구상·추상의 구분을 없이한다해도 심사위원들이「具象派」와「抽象派」라는 무형의 인맥을 탈피하지않으면 평지풍파같은것을 일으킬소지가 없지않다。

심사위원·초대작가選定 최대難題
制度개혁맞춰 運營妙살려야 成功

현대미술관의 李慶成관장은『제도가 문제가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國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표현한것이다。지금까지 國展의 제도는 여러가지로 바뀌었지만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이들에대한 세인의 신뢰는 전혀 향상되지않았다。

결국 권위있는 평론가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기때문인데 이것은 예능계대학의 실기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는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있다。

國展개혁조치가 발표되자 미술계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면서도 관심의 초점은 기성작가전의 초대범위에 집중되고있다。

재야작가인 南天 宋秀南화백은『기왕 개혁을하려면 형식적인 제도의 개혁에 끝날것이아니라 명실공히 한국미술을 포용할수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할 것이다』고 말하고있다。

그는 또 기왕 공간을 확보하기위해 기성전을 떼낸이상 앞으로는 전시면적에 작품과 입선자수등을 맞추던 폐단을 벗어나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이에비해 國展출신작가들은 뚜렷한 언질은 없지만 지금까지 國展이 배출한 작가들의 기득권을 일시에 깨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梁주기자】

雜音·紛糾의 國展33年
美術文化발전에 중추적역할
심사불공평하다…反旗세차례
入選위해 뒷돈 去來…파벌조성 副作用도

1회때부터 [illegible]

지난해 제30회 가을國展을 끝으로 막을내린 大韓民國美術展覽會(略稱·國展)는 33년동안 30회를이어오면서 단한번이라도 심사에따른 잡음이 가신일이 없을정도로 말썽과 분규가 점철된 역사를 지녀왔다。

이같은 얼룩의 발자취를 남겨왔고 잦은 제도개혁이 뒤따랐지만 지금까지 전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낳지못한채 이제 그운명을다하게된것이다。

國展은 이같은 부정적측면에서 흔히들 얘기되고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문화발전의 중추로서 견인차구실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功도 적은것만은아니다。

國展은 정부수립이듬해인 1949년9월22일 문교부고시제1호로 출발했다。

제1회전시회는 그해 11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景福宮미술관(지금의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됐는데 해방전의 전람회인 朝鮮美術展覽會(略稱·鮮展)를 國展의 전신으로 보느냐 않느냐는 화가들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교부는 國展을위해 문교부산하에 특별기관으로 예술위원회를 두고 이예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뽑고 國展규정을 정했다。이때예술위원회의 회원들은 春谷高羲東、素荃孫在馨、雪蕉李鍾禹、心汕盧壽鉉、雨石張勃、梧下李昞圭씨등으로 이들이 바로 國展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國展은 출범당시부터 주도권을 놓고 반목이 팽배했다。그것은 日帝때 활약한 親日작가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된 작가는 동양화부문의 以堂 金殷鎬、靑田 李象範화백이다。以堂과 靑田은 鮮展시대「참여」라는 이름으로 심사위원을 지냈기 때문이다。

제1회 國展은 미술계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가있었으나 전시회 자체로서는 커다란 성공이었다。

그러나 제2회예정인 國展은 6·25로 중단되고 53년 서울환도와 더불어 부활、제2회전을 개최하고 그이래 지난81년까지 한회도 거르지않고계속해왔다。

國展사상 심사에 反旗를 든 경우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집단행동으로 도전받았던것은 세차례나있었다。

그 첫번째가 54년 제3회때。이때 國展 동양화부에 낙선한 작가 10여명이 國展전시기간중 和信백화점화랑을 빌어 낙선자전시회를 열었다。

두번째는 67년 제16회國展때 역시 동양화부의 낙선작가 25명이 덕수궁中和門옆 건물에서 낙선자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때 작가들은 대통령에게 청원서까지 냈었다。이들 작가들은 현재 거의가 40대의 중견작가들이 됐는데 작품선정의 편파성과 國展의 私塾展化를 공격했었다。

세번째는 71년 제20회國展 서예부문에서 낙선한 작가들이 미도파화랑에서「서예작가평가전」이란 이름으로개최한 낙선전이다。이낙선작가들의 작품을 심사한 如初 金膺顯씨는「낙선전의 특선작이 國展의 특선작보다 훨씬 나았다」고 말했었다。

國展심사에 대한 이같은 도전은 심사의 불공평성과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書風을 고집한 獨善이 그 주된 요인이되고 있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결정되면 응모자들은 심사위원들의 自宅을 순례하는 것이 常例였으며 특히 동양화와 서예부문의 경우 入·特選을 위해서는 최고5백만원(77·78년의 경우)정도의 돈을뿌린다는 얘기가공공연한비밀로되어있었다。

럽게 돼 있다。

國展초기의 親日派 배제문제에서부터 시작、56년 5회때의 서울大·弘益大派 분규로 인한 國展 보이코트파동、대통령상을 둘러먹기식으로 안배하는 부조리등은 國展만이 가질수있는 고질이기도 했다。

이같은 例는 전혀 無名의 작가가 대통령상을 받게도 했는데 그 이듬해에 낙선하게 돼있는것을 입선으로 구제한 넌센스를 빚었었다。

따라서 일부작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國展에 참여치않고 在野작가로 자기의 길을 걸은 이들도 많은데 이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작가들도 많다。

國展에서 가장 큰 사건은 78년 서울전시회가 끝나고 大田에서의지방전시중일어났던 도난사건을 꼽을수가 있다。총1백59점이 大田女高에서 전시중 무려 58점이 도난당한 것。도난작품은 어느 한점도 회수되지 못했다。

이제 國展은 없어지지만 國展에서 양성된작가는 그대로 남아있다。2백명이 넘는 초대작가가 있으며 또 추천작가가 되기위해 평생을 國展에 바친 無名의 작가들도 있다。國展 이후에 이들이 활약할 무대는 어디가될지 궁금하다。【丁熹기자】

◇國展의 발자취

▲1922년—44년=鮮展개최<1—23회조선총독부주관>
▲1949년 10월=제1회국전개최<동양화, 서양화, 조각공예, 서예(5개부문), 추천작가12명지정>
▲1950년—52년=6·25동란으로중단
▲1953년 10월=제2회국전개최
▲1955년 10 =제4회국전 <건축부문추가(6개부문) 추천작가, 초대작가구분>
▲1961년 10월=제10회국전<추천작가, 초대작가를 추천작가로 일원화>
▲1964년10월=제13회국전<사진부문추가(7개부문)>
▲1968년10월=제17회국전<문교부에서문공부로이관>
▲1969년10월=제18회국전<추천작가초대작가재구분>
▲1970년10월=제19회국전<건축, 사진별도전 개최·회화, 조각의구상, 추상구분>
▲1971년 9월=제1회건축, 사진전개최
▲1974년 1월=제23회국전<사진, 건축부문복귀(10개부문)·봄국전, 가을국전으로 구분>
▲1980년 1월=제29회국전<문공부에서 문예진흥원으로이관, 정부상폐지, 부문별대상채택>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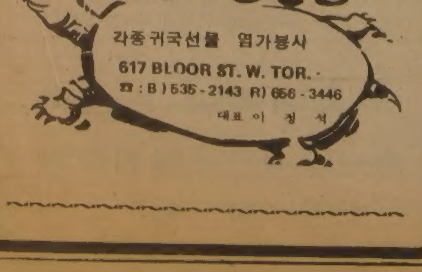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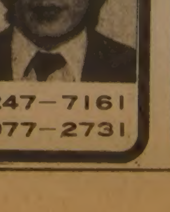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5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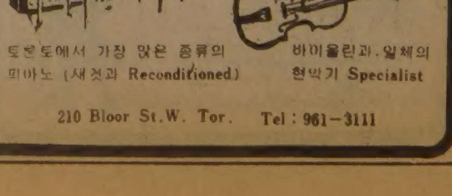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세일즈·매스터
이한구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SHINLL THE KOREA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TELEX Share하실분을 구합니다.
☎ : 978-6259(B), 226-2618(R) Mr.리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데번포트×오크우드지역)
☎ : R)960-0761, B)656-3020

Become Hospital Ward Clerk—Secretary.
$7/Hour. Join 3days training Seminar
☎ : 961-9464

형님 정용평씨(Anthony Chung)를동생 용휘씨가
찾으니 아래주소로 곧 연락바람.
주소 : 630 Bathcrat St.

장난감, 선물용물건 판매 세일스맨 구함.
기존 또는 새로 버라이어티 가게등을 발굴해
저희회사 상품을 소개, 판매할 세일즈맨 구함.
☎ : 461-3555

일요일에 일하실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여자분)구함
정오 12시~오후8시까지 위치 : 다운·타운
☎ : 921-0624

▪램프, 갓 미싱 집에서 하실분 구함.
▪영어를 하실수 있어야함.
Lamp Boutique (655 mt. Pleasant Rd.
☎ : 483-7643, 221-4433

고급코트를 만들수있는 친철라 사육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수 있음.
☎ : 859-4366

매매및 양도

가정사정으로 성업중인 가스바와 버라이어티
가게를 급매코저 함.
년매상 : 가스 바(70만갈론)
주매상 : 버라이어티 스토아($3,150)
위 치 : 하이웨이89×24(Shelburne)
☎ : (519)925-5210 프랭크(오후3시이후 연락바람)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주에 6일간 영업(선물, 옷등 기타)
30년간 해오던 잡화상을 귀국관계로 급매함.
가격 : $10,000 + 스탁(대략 $25,000)
*Penny Pincher Store
*888 Danforth Ave.
☎ 461-9771 Mr. Lue

스카보로 지역에 있는 두개의Convenience Store
를 팔고자 합니다. 꼭히 관심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
니다. ☎ : 686-1890 오전11시~오후3시 MR. LEE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VENPORT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물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ANFORTH. ☎ : 466-3423

직접팝니다. 매우 이익이 높은 영·스트릿 & 에그린톤에
있는 빵집(델리카티슨), 건강상 이유로 판매함.
☎ : 낮, 487-2393, 저녁, 481-4687(Teresa)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 : 481-3443(B), 745-5485(R) 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오래된 미시사가에 있는 이익높은 꽃집 팝니다.
☎ : (낮)826-1591, (밤)826-3246

매 매
• 토론토. 해밀톤. 오샤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정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영수
2186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6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식 품 점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셸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1-1085 김 춘 택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넌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용환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응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
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영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766-8680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아리랑 한국민속 큰 화 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정취 담뿍 풍기는 이 민속제전에
오시라, 보시라, 들으시라

한국 음악계의 원로 김생려 선생과 민속무용의 권위자 권스텔라 선생 지도

때 : 1982년 3 월 3 일～4 일 밤 8 시

장소 : RYERSON THEATRE (라이아슨 극장)
43 Gerrard St. Toronto

예매처 : 무나미 트로피(298-3584) / 미도파 백화점(536-1692) / 한인연합상사 (251-6578)
동궁식당 (757-6334) / 기타 주요식품점및 한인상점 / Eaton's TICKETRON® (595-5088)

LIONS L 토론토 한인 라이온즈클럽 제공